소설 문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매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게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 맬 걱정도, 호포 바칠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을 걱정도. 호동그란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고만 싶으면 도야지구, 닭이구, 개구,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 돈도.

그러나 주재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 가라, 하는데 ㉠ 학질이었다.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 담에는 절도로,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러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에 덜컥 일을 만났다.

지금까지 논의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오는 응고개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오가 베어야 할 것이다. 누가 들던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오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서른하나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벼를 베지 않는다. 남은 다 들 거둬 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참판이든 뻔질 찾아와 벼를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벼는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오의 아내가 지금 기지 사경이매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 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오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홑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벼를 거둬 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새벽부터 엣, 엣, 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초*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를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기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 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 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건 진정 열적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 참다 참다 못해 응오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샛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비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음은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말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 두지 않을 수 없다. 벼를 거뒀다고 말만 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칠이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구구루* 가만만 있었더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이만치 어지간히 속이 튄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 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암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 이러면 하여튼 일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 논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벼는 넉넉히 거둬 들일 수는 있다마는, 한번 버릇을 잘못 해놓으면 어느 작인까지 행실을 버릴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이었다. 실상이야 고까짓 벼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놀음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제쳐 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알장 이삭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댓 말 가량은 될는지!

㉢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께로 노닐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누굴 성가시게 굴려고 그러는지.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하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든 혐의를 받아 폐는 좋이 입어야 될 것이다.

응칠이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 갈 만한 놈을 여럿 들어 보았으나 이렇다 찍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의 짓이리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던 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김유정, 「만무방」-

*__장리(長利)__ :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 흔히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받는다.
*__도지(賭地)__ :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이나 집터. 남의 논밭을 빌려서 부치는 대가로 해마다 내는 벼.
*__색초__ : 잡초를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__구구루__ : 잠자코.
*__만무방__ : 예의와 염치가 도무지 없는 사람.

1. 위 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호흡이 긴 문체를 사용하여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배경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방법으로 그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④ 토속적인 어휘를 구사하여 향토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⑤ 역설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소설 문학

2. **'응칠' 이가 〈보기〉와 같은 후일담을 썼다고 할 때, 위 글에 나타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은?**

보 기

ⓐ나는 당시에는 정말이지 아무 대책 없는 삶을 살았다. 가진 것도 없었으니 거칠 것이 없어 닥치는 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동생 응오를 찾아갔다. 그래도 형제 아닌가. ⓒ동생과 힘을 합쳐 잘 살아보자는 각오가 나름대로 서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자초지종이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당시의 정황은 이랬다. ⓓ응오네 논에 도둑이 든 것을 내가 처음 발견했다. ⓔ송이를 따러 가던 길이었지만, 그것은 인제 뒷전이고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③

3. **㉠과 관련한 심화 학습을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질(瘧疾) [의학]=말라리아. ¶ 학질을 앓다./학질에 걸리다./그는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관용어) 학질(을) 떼다. ①학질을 고쳐 그 병에서 벗어나다. ②괴롭거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느라고 진땀을 빼다. ¶ 귀찮게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아주 학질을 뗐다.

① ㉠은 관용어 ②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② ㉠은 관용어를 조금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로 보입니다.
③ '괴로움'의 대표적 사례로 '학질에 걸려 떠는 것'을 든 것 같습니다.
④ ㉠을 다른 말로 대체한다면 '곤욕스럽다' 정도가 적절하겠습니다.
⑤ ㉠을 '학질에 걸렸다.' 라고 표현해도 의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⑤

4. **㉡의 '응오' 가 〈보기〉를 읽고 느꼈을 작한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타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정약용, 「보리타작」 –

① 가을만큼 풍성한 계절도 없지요. 그러나 병든 마음으로는 어느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② 농부가 타작할 때만큼 신나는 일은 없지요. 성실히 일한 만큼 얻는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③ 수확의 즐거움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에 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즐거울까요?
④ 힘든 일을 할 때에는 노동요가 제격이지요. 호흡을 맞추어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금방이지요.
⑤ 육체 노동이 비록 힘들기는 하여도 마음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5. **㉢에 나타난 응칠이의 심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어쩌면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벼를 베 갔는지 놀라워하고 있다.
② 응오가 한 일임을 직감하면서 그것을 덮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③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이 수용하기로 하면서 해결 방안을 궁리하고 있다.
④ 평소 자신의 소행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이 벼 도둑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⑤ 누가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였는지 따져 보면서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실 이번 길은 수택의 일생에 있어서 커다란 분기점이었다. 그것이 희망의 새출발이 될지 패배가 될지는 그가 타고난 운명(?)에 맡기려니와 현재 그의 가슴에 채워진 감회도 그 둘 중 어느 것인지 그 자신 모르고 있는 터다. 그가 농촌 생활을 꿈꾸고 이른 봄 사지 안을 두둑하게 넣은 춘추복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사직원(辭職願)이 이 중 봉투를 석 장이나 갈가리 피우고 여름을 났을 때는 그래도 '패배자'란 감정이 없을 때였다. 일금 팔십 원의 샐러리라면, 그리 적은 봉급도 아니었다. 회사 [총무부 주임] 말마따나 이런 자리를 노리는 대학 출신의 이력서가 기백장 서랍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터다. 사변으로 해서 갑자기 물가가 고등해진 터라 이 정도의 수입만 가지고는 도저히 도회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는 하나, 그렇다고 전혀 수입이 없는 것보다 날 것은 주먹구구까지도 필요치 않은 것이었다. 그의 계획을 듣고 [친구]의 대부분이 아니, 거의 전부가 반대를 한 것도 실로 이 단순한 타산에서였다. 너 굴러든 복바가지를 차 버리고 어쩔 테냐는 듯싶은 총무부 주임의 눈치나, 철없이 날뛴다고 가련해하는 눈으로 보는 동료들의 말투가 그의 결심에 되레 기름을 쳐 준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수택의 계획은 그네들이 보듯이 그렇게 근거가 적은 것도 아니다. 그의 계획이 무모함을 충고하는 친구와 동료들의 거의 전부가 생활난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수택만큼 생활고를 겪어 온 사람도 그만한 낫세로는 드물리라.

<중략>

실개천 물 소리도 제법 여물다. 풀섭에서 반딧불이가 반짝이고 개구리 소리가 으슥히 어울리는 것이 역시 아직도 여름밤이다. / 수택은 빨래 자리로 놓은 돌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양치를 했다.

아침 저녁으로 반죽한 치분으로만 닦아온 이가 물로만 옹얼옹얼해 뱉어도 입 안이 환한 것이 이상할 정도다. 그는 삽을 질질 끌고 징검다리를 건너 논길로 들어섰다. 광대 줄 타듯 하던 논두렁도 어느 새 평지처럼 평탄해진 것 같고, 아랫종아리에서 채는 이슬이 생기 있는 감촉을 준다. 아스팔트를 거닐다가 상점에서 뿌린 물이 한 방울만 튀어도 시비를 걸던 일이 마치 옛날 꿈 같았다. / '이만하면 나도 농촌 제일과는 마친 셈인가?'

소설 문학

[A] 구수한 풀내가 코를 통해서 가슴 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그것이라 느끼며 수택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려 본다. 밤 이슬이 눅눅하니 젖은 셔츠에서도 차츰차츰 불쾌한 촉감이 없어져 간다. 쫄쫄쫄 윗논배미서 아랫논으로 떨어지는 물꼬 소리에 금시 벼폭이 부쩍부쩍 살이 찌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벌써 그의 문학적인 감각 때문만이 아닌 것 같다.

여남은 다랑이 건너 도둑한 밭 모롱이에서 누군지 단소를 처량스러이 불고 있다. 역시 물꼬보는 사람이리라. 맞은 편 아카시아가 몇 주 선 둔덕 원두막에서는 젊은이들의 노래 소리가 흘러나온다. 술집 여인들이 놀러 나왔는지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가끔 섞여 나온다. / 수택은 물꼬를 삥 한 번 둘러보고 원두막으로 어슬렁어슬렁 올라갔다. 발 소리에 노래 소리가 뚝 그치며 누군지 소리를 딱 지른다.

"누구유!" / "나요!" / "어, 서울 서방님이신가. 그래 요샌 ⓐ 꼴지게가 등에 제법 붙든가."

까르르 웃음이 터진다. 시골 살면 그야말로 말 소리에서 흙내와 된장내가 나는겐가…… 수택은 원두막 사닥다리를 한층 한층 올라가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내게선 언제부터나 흙냄새가 나려는고……."

<중략>

수택은 처음 고향에 돌아와서 [동리 사람들]의 시선에 차디찬 것을 느끼었었다. 말만 고향이지 눈에 익은 얼굴도 거의 없었다. 파도에 밀린 뱃조각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어 태반은 타곳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 때 그 차디찬 시선에 그는 일종의 반감까지 일으킨 일이 있었으나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품고 있던 그 증오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이었다 싶었다.

'그렇다. 하루비뼈 나도 대처(大處) 사람의 탈을 벗고 흙과 친하자. 그래서 흙의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타이를 때 누군지 귀에다 대고 소리를 꽥 지른다. / '그것은 퇴화다!'

그것은 대처 사람인 또한 [다른 수택]이었다. 물방울 한 개만 튀어도 시비를 가리고 파리 한 마리에 상을 찡그리고 데파아트에서 한 시간씩이나 넥타이를 고르던 도회인의 반역이었다.

'퇴화! 퇴화 좋다.' / '아니 패배이다! 패바자의 역변(逆變)이다. 도시 생활…… 명문 사회에서 생활 경쟁에서 진 패배자의 자위 수단이다. 그것은……' / '아무것이든 좋다!'

그는 이렇게 발악을 했다.

이러한 마음의 투쟁은 날을 거듭할수록에 격렬해 갔다. 수택이가 자기의 피에는 흙의 전통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한 착각이었다. 누르면 누를수록 문화에 주린 도회인의 반항은 억세갔다. 포근포근한 흙을 밟는 평범한 감촉보다도 가죽을 통해서 오는 포도(鋪道)의 감촉이 얼마나 현대적인가 했다. 그것은 마치 베어질 것 같은 새 지폐를 만질 때의 감촉과의 차이와도 같았다. 사람에게서나 자연에게서나 입체적인 선(線)의 미가 그리웠다.

'아니다. 참자. 흙과 친하자.' / 수택은 벌떡 일어났다. 참새 떼가 와아 하고 풍긴다. / 이 젊은 도회인이 도회의 환상에 사로잡힌 동안 참새 떼들은 양양해서 벼톨을 까먹고 있었다.

–이무영, 「제1과 제1장」–

6.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위 글에 나타난 '사건'의 단위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소설 속의 인물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의도하거나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 그런데 한 번의 행동으로 목적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또 다른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행동을 '단위 행동'이라 한다. 따라서 단위 행동의 집합이 한 단위를 이룬 것을 '사건'이라고 한다.

[단위 행동의 집합 = 사건 (a + b + c + d + e …)] → [목적 : '수택'이 도회인의 삶을 청산하고 농촌 사람이 되려고 함.]

① 대처(大處) 사람의 탈을 벗기 위해 노력함.
② 오래 전부터 써 놓았던 사직원을 제출함.
③ 생활고를 일찍 겪어 보았기에 시골에서의 살 계획을 미리 세움.
④ 봉급만으로는 도회지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여김.
⑤ 광대줄을 타듯 위태롭게 걷던 논두렁길을 익숙하게 다니게 됨.

④

7. **위 글에 나타난 중심 갈등과 그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택] ↔ [다른 수택]의 갈등 : 도회인의 모습을 한 다른 모습의 수택이 반항을 해 옴.
② [수택] ↔ [아버지]의 갈등 : 고향으로 온 수택을 아버지가 증오함.
③ [수택] ↔ [친구]의 갈등 : 친구(들)이 수택의 결정을 무모하다며 그의 계획을 말림.
④ [수택] ↔ [총무부 주임]의 갈등 : 총무부 주임의 눈치를 보며 생활해야 함.
⑤ [수택] ↔ [동리 사람들]의 갈등 : 동리 사람들이 도회에서 온 수택에게 반감을 보임.

④

8. **발화 맥락을 고려할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농촌 일이 힘들지 않는가.
② 농촌 일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가.
③ 농촌에서 지내기가 싫증이 나지 않는가.
④ 농촌에세 하늘 일들이 생각보다 꽤 흥겹지 아니한가.
⑤ 농촌에선 늘상 짐을 지고 다니니 어깨가 무겁지 않은가.

①

9. **[A]와 관련하여, <조건>에 따라 짧은 글을 써 보았다. 가장 적절한 내용은?**

<조건>
1) [A]에 나타난 인물의 느낌과 심정을 최대한 반영하여 1인칭으로 표현해 볼 것.
2) 촉각적인 심상으로 바꾸어 표현할 것.

① 풋풋한 풀물에 내 몸이 젖는 듯 했다. 순간 내 몸에 남아 있던 도회의 물이 서서히 빠져 나가는 느낌이었다.
② 긴 여름 해가 서서히 나래를 접고 있다. 늘어선 논의 벼포기들이 하얗게 보인다. 내 몸도 황혼에 젖어 붉게 물들어간다.
③ 나의 젊음을 태양 빛에 불 태웠다. 젊음이 타는 냄새는 건강한 땀 냄새였다. 멀리 고개 들어보니 태양에 종일 젖어 있던 다른 벗들도 마을로 돌아온다.
④ 찬란했던 도회의 야경(夜景) 못지않게 무성한 잡초들이 만들어 내는 자연의 풍광도 멋지다. 나는 헝클어졌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이내 사념에 잠긴다.
⑤ 도시에서 가까이하던 타이핑의 기계처럼 오늘 나는 부지런히 논밭을 오갔다. 해가 저무니 맺혔던 땀 방울이 서서히 식기 시작하였다. 서늘한 기운이 피부 밑을 파고 든다.

③

10. **<보기>에 나타난 자료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제기할 만한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무영은 농민 문학을 위한 일대 전환기를 만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1939년 동아일보 기자직을 그만 두고 어느 시골로 이사를 하였다. 그로부터 2, 3년 동안 그는 그의 농민 소설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제1과 제1장」(1939)과 그 속편인 「흙의 노예」(1940)를 비롯하여 몇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그런데 '농민 소설'이란 좁은 의미로 볼 때, 흙과 숙명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농민의 생활상을 제시하는 소설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농민의 노동관, 생활상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무영의 소설들을 본격적인 농민 소설이라 볼 수 있을지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① '수택'은 기자였을 때 주로 농촌 문제를 가지고 기사를 썼을까?
② '수택'은 농촌에 살면서 진정한 농민 문학을 창작할 수 있을까?
③ 과연 '수택'은 흙과 숙명적인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인물인가?
④ 소설 속의 '마을 사람'들은 농부로서 노동관이 분명히 확립되어 있는 인물인가?
⑤ 농촌의 배경 묘사로 보아 이 소설 속의 농촌은 전형적인 농촌이라 볼 수 있는가?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박희완 영감이란 세 영감 중 하나로 안 초시처럼 이 복덕방에 와 자기까지는 안 하나 꽤 쑬쑬히 놀러 오는 늙은이다. 아니 놀러 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는 공부도 한다. 재판소에 다니는 조카가 있어 대서업(代書業, 남 대신 문서 따위를 써 주고 보수를 받는 직업) 운동을 한다고 『속수 국어 독본(速修國語讀本)』을 노상 끼고 와서 그 삼국지(三國志) 읽던 투로

"긴상 도꼬에 이끼마쓰까(김 선생 어디에 갑니까)."

어쩌고를 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속수 국어 독본』 뚜껑이 손때에 절고, 또 어떤 때는 목침 위에 받쳐 베고 낮잠도 자서 머리 때까지 새까맣게 쩔어 조선 총독부 편찬(朝鮮總督府編纂)이란 잔 글자들은 보이지 않게 되도록, 대서업 허가는 의연히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너나 내나 다 산 것들이 업은 가져 뭘 허니 무슨 세월에… 흥!"

하고 어떤 때, 안 초시는 한나절이나 화투 패를 떼내어 보고 안 떨어지면 그 화풀이로 박희완 영감이 들고 중얼거리는 『속수 국어 독본』을 툭 채어 행길로 팽개치며 그랬다.

"넌 또 무슨 재술 바라구 밤낮 화토패나 떨어지길 바라니?"

"난 심심풀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박희완 영감보다 더 세상에 대한 야심이 끓었다. 딸이 평양으로 대구로 다니며 지방 순회까지 하여서 제법 돈냥이나 걷힌 것 같으나 연구소를 내노라고 집을 뜯어고친다 유성기를 사들인다 교제를 하러 돌아다닌다 하노라고, 더구나 귀찮게만 아는 이 애비를 위해 쓸 돈은 예산에부터 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애! 낡은 솜이 돼 그런지, 삯바느질이 돼 그런지, 바지 솜이 모두 치어서(한쪽으로 쏠리거나 뭉쳐서) 어떤 덴 홑옷이야. 암만 해두 사쓸 한 벌 사 입어야겠다."

하고 딸의 눈치만 보아 오다 한번은 입을 열었더니

"어련이 인제 사드릴라구요."

하고 딸은 대답은 선선하였으나 셔츠는 그해 겨울이 다 지나도록 구경도 못하였다. 셔츠는커녕 안경다리를 고치겠다고 돈 일 원만 달래도 일 원짜리를 굳이 바꿔다가 오십 전 한 닢만 주었다.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테만 오륙 원 먹은 것이어서 오십 전만으로 그런 다리는 어림도 없었다. 오십 전 짜리 다리도 있지만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었다. 차라리 종이 노끈인 채 쓰기로 하고 오십 전은 담배값으로 나가고 말았다.

"왜 안경다린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오십 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두 한 달에 삼 원 팔십 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 먹게 어서 죽어 달라는 소리로도 들렸다.

"그게 내게 상관 있니?"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구 위해 들었게요, 그럼?"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문 살아서 한 푼이라두 다구. 죽은 뒤에 내가 알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소설 문학

"오십 전 이문 왜 안경다릴 못 고치세요?"

초시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리실 처지야요?"

그러나 오십 전은 또 마코 값으로 다 나갔다.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다.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자식…… 그저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초시는 돈의 긴요성(緊要性)을 날로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돈만 가지면야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서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느니 고층 건축(高層建築)들이요 동네마다 느느니 그림 같은 문화 주택(文化住宅)들이다.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물에서 가주 튀어나온 미여기(메기)처럼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등덜미에서 소리를 꽥 지른다. 돌아다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 뒤에는 금시계 줄이 번쩍거리는, 살진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았는 것이었다.

"예순이 낼 모레…… 젠—장할 것."

초시는 늙어 가는 것이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만원이라도 붙들어 가지고 내 손으로 다시 한 번 이 세상과 교섭해 보고 싶었다. 지금 이 꼴로서야 문화 주택이 암만 서기로 내게 무슨 상관이며 자동차, 비행기가 개미떼나 파리 떼처럼 퍼지기로 나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이냐. 세상과 자기와는 자기 손에서 돈이 떨어진, 그 즉시로 인연이 끊어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면 송장이나 다름없지 뭔가?"

초시는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진 지가 이미 오래였다.

"무슨 수가 없을까?"

또,

"무슨 그루테기가 있어야 비비지!"

그러다가도,

"그래도 돈냥이나 엎질러 본 녀석이 벌기도 하는 게지."

하고 그야말로 무슨 그루터기만 만나면 꼭 벌기는 할 자신은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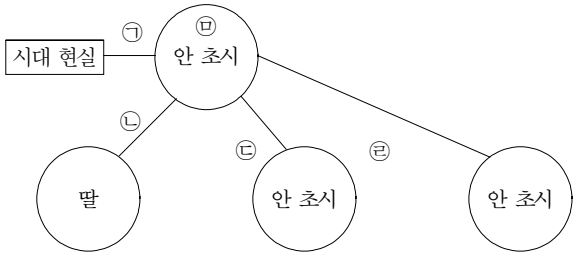
<중략>

[A] 일 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아주 악한 꿈이었다. 삼천 원어치 땅을 사 놓고 날마다 신문을 들여다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는 축항이 된단 말이 신문에도, 소문에도 나지 않았다. 용당포(龍塘浦)와 다사도(多獅島)에는 땅 값이 삼십 배가 올랐느니 오십 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소식일 뿐 아니라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완 영감을 통해서 알고 보니 그 관변 모씨에게 박희완 영감부터 속아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 측량까지 하기는 하였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거기다 땅을 샀던, 그 모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꾸민 연극이었다.

–이태준, 「복덕방」–

11. 위 글에 나타난 '인물, 인물-인물, 인물-시대 현실'의 상호 작용에 관해 나눈 의견 중 적절한 것은?



① ㉠ : 안 초시는 자신의 욕망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② ㉡ : 안 초시는 딸이 자신을 혼자 두고 일 때문에 집을 나가 있는 날이 많아서 몹시 불만을 가지고 있어.

③ ㉢ : 안 초시는 시대 현실은 외면한 채 일본어 공부에만 몰두하는 박희완 영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

④ ㉣ : 안 초시는 빙그레 웃고 있는 중년 신사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고 있어.

⑤ ㉮ : 안 초시는 정신적 가치는 점점 소홀히 여기고 물질만을 중히 여기는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

①

12. 위 글에 나타난 '아버지'와 '딸'의 대화를 듣고 이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① 아버지에게 : '보험료'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는 딸의 효심을 알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아버지에게 : 권위를 지나치게 내세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딸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게 필요합니다.

③ 딸에게 : 사회적인 활동도 좋지만, 아버지의 곤궁한 처지를 좀더 보살펴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④ 딸에게 : 만약 아버지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정성껏 아뢰어 잘못을 고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두 사람 모두에게 : 비록 상대에게 화가 나더라도 부녀간의 도리를 끊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1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한 등장 인물이 다른 등장 인물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② 등장 인물의 대화와 행위에 내재된 심리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다.

③ 여러 등장 인물의 시각을 빌려 중심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④ 주변 인물이 작중 상황에 개입하여 중심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평가하고 있다.

⑤ 특별한 사건의 전개 과정이 없이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식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다.

②

소설 문학

14. **[A]와 만화 <Ⅰ>을 관련지어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한 것을 <Ⅱ>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Ⅰ> 만화 <복덕방> 중에서

[그림 삽입]

<Ⅱ>

a. ㈎는 기다리는 소식을 접하고자 1년 간 거의 날마다 신문을 훌어보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b. ㈏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힌 얼굴을 통해, 한바탕 '꿈'으로 끝나 버린 인물의 허탈감을 암시한다.

c. ㈐는 밖에서 복덕방을 들여다보는 시선을 취함으로써 인물의 처지를 좀더 객관화해서 보여 주는 효과가 있다.

d. ㈑는 어두운 데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사건의 어두운 분위기를 암시한다.

① a, b ② a, b, c ③ a, b, d
④ a, c, d ⑤ a, b, c, d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 날 황혼녘에 나는 누이를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작은 강의 둑으로 불러내었다. 강은 이 들의 한복판을 꾸불꾸불 가르며 흐르고 있었다. 대개의 강들과는 반대로 이 강의 수원(水源)은 바다였다. 바다가 썰물일 때면 따라서 이 강의 물도 빠지고, 바다가 밀물일 때면 이 강도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것이었다. 이 강가의 무성한 갈대밭 사이에 매여 있는 작은 돛배들은 밀물일 때를 기다려서 떠나고 혹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강이 들의 농업수(農業水)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연안(沿岸)의 고기잡이라든가에는 퍽 친절한 수로(水路)가 되어 있었다. 우리가 사는 마을은 이 강과 그리고 이 들에 매달려 있었다.

밀물 시간이어서 강물은 바다 쪽으로부터 빠르게 흘러오고 있었다. 갈대 숲 사이에는 부리가 긴 물새들이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간간이 고기들이 강물 위로 펄쩍 뛰어오르곤 해서 주위의 정적을 돋우어 주고 있었다. 강물은 황혼 속에서 금빛이었다. 해풍이 퍽 세게 불어 와서 내 곁에 말없이 앉아 있는 누이의 머리칼을 흩날리고 있었다. 결국 이 황혼과 이 해풍이 누이의 침묵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누이는 도시로 갔었다. 어머니와 내가 누이를 도시로 보냈었다. 그리고 며칠 전 갑자기, 거진 2년 만에 이 곳으로 다시 돌아왔었다. 누이가 도시에 가 있던 그 2년 동안 나는 얼마나 지금 우리 앞에서 지상을 포옹하고 있는 이 자연 현상들에게 누이의 평안을 빌었던가. 그러나 도시에서는 항상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모양이었다.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할퀴고 지나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빨아먹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를 찢고 갔었을까, 어떠한 일들이 누이에게 저런 침묵을 떠맡기고 갔었을까, 누이는 도시에서의 이야기를 나와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하려 들지 않았었다. 우리는 우기가 지니고 왔던 작은 보따리를 헤쳐 보았다. 그러나 헌옷 몇 벌과 두어 가지의 화장 도구를 발견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걸로써는 누이에게 침묵을 만들어 준 2년의 내용을 측량해 볼 길이 없었다. 누이의 침묵은 무엇엔가의 항거(抗拒)의 표시였다. 우리를 향한 항거였을까. 도시를 향한 항거였을까.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침묵으로써가 아니라 높은 목소리로 누이는 우리를 질책(叱責)했어야 하는 것이다. ⓐ 높은 목소리로 질책하는 방법이 ⓑ 침묵의 질책보다 더 서툴렀다는 것을 결국 도시에서 배워 왔단 말인가?

반대로, 도시를 향한 항거(抗拒)라면 – 아마 틀림없이 이것인 모양이었는데 – 그렇다면 누이의 저 향수(鄕愁)와 고독을 발산하는 눈빛, 사람들이 두고 온 것들에게 보내는 마음의 등불 같은 저 눈빛을 우리는 무엇으로써 설명해야 할 것인가?

누이가 돌아오고, 누이가 도시에서의 기억을 망각하려고 애쓰는 듯한 침묵 속에 빠져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아마 누이가 도시에서 묻혀 온 고독이 병균처럼 우리 자신들조차 침식시켜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황혼과 이 해풍. 그들이 우리에게 알기를 강요하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미소를 침묵으로 바꾸어 놓는, 만족을 불만족으로 바꾸어 놓는, 나를 남으로 바꾸어 놓는, 요컨대 우리가 만족해 있던 것을 그 반대로 치환(置換)시켜 버리는 세계였던 것인가. 누이는 적어도 우리가 보낼 때에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완성되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그런데 침묵의 훈련만을 받고 돌아오다니.

어제 저녁, 어머니는 당신이 우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로 되어 있는 밀국수를 끓여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말씨와 정성어린 손짓으로 누이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도시에서 무슨 일을 했던가, 어떤 곤란을 겪었던가, 무엇이 재미있었던가, 남자를 사귀었던가, 그렇다면 어떤 남자였던가, 고 얘기해 주기를 간청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짐작컨대 누이의 쓰라린 추억을 불러일으킨 모양이었다. 누이는 어머니를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유 등잔불의 펄럭이는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더욱 쓸쓸해 보이게 했다. 왜 저를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누이는 말했다. 어머니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새삼스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라고 누이는 말하고 싶었던 거다. 하루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서운 사건이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벌이지고 그리고 다음 날은 희생자들이 작은 조각에 몸을 기대고 자기들의 괴로움을 울며 부유(浮遊)하는 것이다.

강물이 빠르게 밀려오고 금빛 하늘이 점점 회색으로 변해 가는 이 시각에 내게는 아직도 신비한 힘을 보여 주는 자연 속에서 나는 누이로 하여금 도시의 모든 기억을 토해 버리게 할 생각이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이를 위해서였다. 2년 동안을 씻어 버리고 다시 이 짠 냄새만을 싣고 오는 해풍으로 목욕시키고 싶었다. 숲 속의 짐승들이 감각만으로써 살아갈 수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싶었다.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저 도시가 침범해 오지 않는 한, 우리는 한 고장을 지키기에 충분한 만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영원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 의지(意志)의 신화(神話)들을 배운다는 것, 우는 법을 배운다는 것, 침묵을 배운다는 것, 그것만이 인간인 것이냐? 인간의 허영이 아닌가, 라고 나는 누이에게 말해 주고 싶었다.

세상은 넓은 것이다. 불만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동시에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포용한다. 세상이 거절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족해 있다는 것을 – 이 작으나마 고용한 풍경 속에서 만족해 있다는 사실을 과시해도 좋은 것이다. 도시에 갔던 사람들이 이 곳으로 여간해선 돌아오지 못하고 마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일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다행히 누이는 돌아왔다. 그러나 옷에 먼지를 묻혀 오듯이 도시가 주었던 상처와 상처의 씨앗을 가지고 돌아왔다. 무수히 조각난 시간과 공간, 무수히 토막 난 언어와 몸짓이 누이의 기억을 이루고 있으리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무수한 것들, 별들처럼 고립되어 반짝이는 그 기억들이 누이의 가슴에 박혀서 누이의 침묵을 연장시키고 혹은 모든 것을 썩어나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냐, 그 파편들은 무엇이냐? 그리하여 ㉠ 나는 동화 속의 인물처럼 말하였던 것이다. – 이번엔 내가 가 보지.

내가 사랑하고 만족해 있던 황혼과 해풍에 꿋꿋한 맹세조차 했었던 것 같다.

–김승옥, 「누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1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작중 상황이 인물의 시각에 의해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② '과거 – 더 이전의 과거 – 현재'로 이어지는 사고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③ 사건의 전개에 따라 인물의 내적 갈등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④ 서술자는 특정한 현상을 초래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대립적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③

16. 〈보기〉는 누이를 이해하기 위해 도시로 간 후의 '나'의 생각이다. 위 글과 〈보기〉를 통해 '나'에게 일어난 변화를 추리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퍽 오래 전에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왔다. 누이가 결혼을 한 것이다. 해풍 속에서 살결을 태우며 자라난 젊은이와. 만일 그 때 누이가 내 곁에 있었더라면, 그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제 각기의 밤이 있듯이 제 각기의 얘기가 있는 것이다. 도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랑하고 동시에 배반하고 그러면 한편에서도 사랑하고 동시에 배반하고 요컨대 심판대(審判臺)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최후 심판의 날>을 상상해 보지만 얼마나 난해(難解)한 순환(循環)일까. 황혼과 해풍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누구나 고독했다.

① 현실에 대해 만족스럽게 여겼지만, 성공만을 추구하며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②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포용적이었지만, 철저한 개인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었다.
③ 가족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④ 명확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했었지만, 더 이상 죄에 대해 느낄 수 없게 되었다.
⑤ 미래에 대해 진취적 사고를 갖고 있었지만, 절망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②

17. 위 글의 내용으로 볼 때, ⓐ와 ⓑ의 차이점으로 적절한 것은?

① 상대방과 의사 소통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② 상대방에 대해 기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의 차이
③ 상대방에 대해 분노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의 차이
④ 상대방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
⑤ 상대방과 형식적 관계를 맺느냐, 본질적 관계를 맺느냐의 차이

①

18. 위 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의 '나'에 대응할 만한 인물로 적절한 것은?

① 홍길동전 : 서자의 신분으로 인해 천대받고 살아야 했던 길동은 어느 날 자신의 운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정처 없이 길을 떠난다.
② 장화 신은 고양이 : 소년은 부모의 유산으로 물려 받은 고양이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③ 헨젤과 그레텔 : 마음씨 고약한 계모로 인해 숲 속에 버려진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에게 붙잡히게 되지만 꾀를 내어 마녀를 죽이고 집까지 가는 길을 찾는다.
④ 무지개 : 소년은 하늘에 떠있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붙잡아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 어머니의 품과 행복한 가정을 버리고 수많은 고난이 기다리는 길을 떠난다.
⑤ 오즈의 마법사 :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마법의 나라로 날아간 도로시는 집으로 오는 길을 찾기 위해 사자, 양철 나무꾼, 허수아비와 함께 에메랄드 시의 마법사를 찾아간다.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능선굽이에 이르렀다.

김 일등병이 대번해서 업을 차례였다.

지형상으로 보아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 앞산으로 질러 올라가면 잠깐이요,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굽이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이었다.

현 중위는 계곡을 내려가 곧장 가자고 했다.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다. 더욱이 그들은 단 몇 걸음의 단축이나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것이었다.

김 일등병의 의견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 계곡을 내려갔다가 나무숲 속에서 방향이라도 잃게 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더디게 되기 쉽다는 것이다.

얼른 결정이 지어지지 않고 있을 때 주 대위가 한 마디 했다.

"현 중위, 김 일병의 말대루 하지."

퍼뜩 현 중위의 눈이 주 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갔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 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고만 개미 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 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

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 떼들이 기어 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 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A] 초조할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 구멍 한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샛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 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 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 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우고 있는 것이었다.

현 중위는 주 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거름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다 먹고 난 현 중위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그런 지 좀만에 주 대위가 김 일등병에게 말했다. / "자네두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 대위를 쳐다봤다. / "현 중원 갔어.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 중위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기를 피하면서, / "자네두 어서 여길 떠나게."

김 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놀을 한 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 대위에게 등을 돌려 댔다.

<중략>

주 대위는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 오던 어떤 상념(想念)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첫째 현 중위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 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할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 일등병을 향해,

"폿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 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있는 힘을 다해 명령조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그 때, 바로 그 때 주 대위의 귀에 은은한 폿소리 사이로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 온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도 의심스러운 듯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지?"

김 일등병이 고개만을 들고 잠시 귀를 기울이듯 하더니,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은 안 들리는군."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바람을 탄 듯이 다시 들려왔다.

"저 소리 말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 오는……."

그래도 김 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개 짖는 소리 같애."

㉠ 개 짖는 소리라는 말에 김 일등병은 지친 몸을 벌떡 일으켜 머리 쪽으로 무릎걸음을 쳐 나갔다.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 등성이를 넘어가면 된다!"

그러나 김 일등병의 귀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누웠던 자리로 도로 뒷걸음질을 쳤다.

주 대위는 김 일등병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도 받고 싶었다.

- 황순원, 「너와 나만의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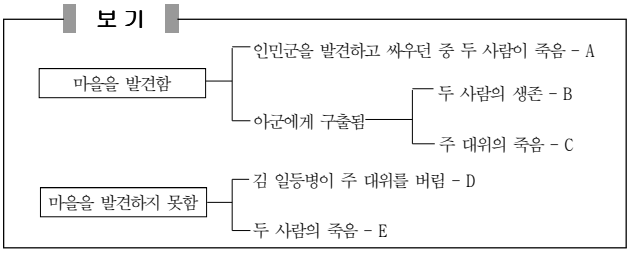
19.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예지 : 주 대위의 강인한 정신력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지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잖아.
② 현성 : 부상당한 전우를 두고 달아난 현 중위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살겠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아닐까?
③ 혜린 : 전쟁이라는 비인간적 상황 속에도 김 일등병을 통해 인간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 주려고 한 작가는 휴머니스트로 볼 수 있을 거야.
④ 성준 : 전쟁에서 인간의 생명처럼 가치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 위 글에 제시된 세 명의 군인들 역시 자신을 전쟁의 소모품 정도로 여기고 있어.
⑤ 성현 : 현 중위의 사고와 행동을 보면, 극한 상황을 맞게 될 때 인간의 의식이 극도로 황폐해져 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

④

20. 〈보기〉는 위 글에 이어질 사건을 예상한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① A : 기대감이 고조되었다가 떨어짐으로써 독자들이 느끼는 비극적 심리의 강도를 극대화함.
② B : 행복한 결말을 통해 독자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반면 극적인 긴박감은 떨어지게 됨.
③ C : 김 일등병을 구하기 위한 주 대위의 전우애와 강인한 의지를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함.
④ D : 최선을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주 대위를 포기한 김 일등병의 행동에 설득력을 부여함.
⑤ E :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강화함.

④

소설 문학

21. **〈보기〉에 제시된 관점을 사용하여 [A]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에 나타난 상징이나 이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법은 장면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상징은 정서의 산물이며 교묘하게 감추어진 여러 요소의 융합으로 인신된다. 이것은 꿈과 동일한 차원에서 상징을 바라보는 것이다.

① '불모의 황야'는 전쟁으로 인해 생명력이 황폐화된 세계를 의미하는 공간이야.
② 현 중위는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을 '개미'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
③ '왕개미'는 인간의 생명을 가치 없이 소멸시키는 전쟁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어.
④ '황달 든 태양'에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 중위의 시각이 드러나고 있어.
⑤ 현 중위가 발견한 '샛구멍'은 전쟁의 비극성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야.

⑤

22. **㉠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삶에 대한 희망이 담겨있는 소리
② 전쟁의 위협적인 성격이 섞인 소리
③ 인생의 무의미함을 일깨워 주는 소리
④ 비현실적 환각 상태로 빠져드는 소리
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암시하는 소리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6·25전쟁으로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원구는 친구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을 만나게 된다. 동욱이 미군들에게 초상화 주문을 받아오면 동옥이는 초상화를 그리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리를 저는 불구에다 자폐적인 성격을 지닌 동옥은 원구에게 호감을 품게 되면서 그런 성격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고 동욱은 은근히 원구가 동옥과 결혼해 주기를 바라지만 원구는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

그 뒤에 한 번은 딴 볼일로 동래까지 갔던 길에 동욱이네 집에 잠깐 들른 일이 있었다. 역시 그날도 장마는 구질구질 계속되고 있었다. 우산을 접으며 마루에 올라서도 동욱만이 머리를 내밀고 맞아줄 뿐 동옥의 기척이 없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동옥은 담요로 머리까지 푹 뒤집어 쓰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 있었다. 이틀째나 저러고 자빠져 있다고 하며 동욱은 그 까닭을 설명했다. 동옥은 뒷방에 살고 있는 주인 노파에게 동욱이도 모르게 이만 환이나 빚을 주고 있었는데, 노파는 이 집까지도 팔아먹고 귀신같이 도주해 버렸다는 것이다. 어제 아침에 집을 산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는데, 이게 또한 어지간히 감때 사나운 자여서 당장 방을 비워 내라고 위협하듯 한다는 것이다. 말을 마치고 난 동욱은 요 맹꽁이 같은 년아, 글세 이게 집이라구 믿고 돈을 줘 하고 발길로 동옥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년아, 이만 환이면 구화로 얼만 줄 아니, 이백만 환이야, 내 돈을 내가 떼였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냐구, 그래, 내가 없으면 네년이 굶어 죽지 않구 살 테냐? 너 같은 병신이 단 한 달을 독력으로 살아? 동욱은 다시 생각해도 악이 받치는 모양이었다.

원구를 위해 동욱은 초밥을 만든다고 분주히 부엌으로 들락날락했으나 원구는 초밥을 얻어먹자고 그러고 앉아 견딜 수는 없었다. 그보다도 동옥이 이틀 동안이나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저러고 누워있다고 하니, 혹시 동옥이가 잠든 틈에라도 몰래 일어나 수면제 같은 것을 먹고 죽어 있지나 않는가 싶어 불안한 생각이 솟았다. 원구는 조금이라도 더 앉아 견디기가 답답해서 자리를 일어서며 아무래도 방을 비워 주어야 하겠거든 자기도 어디 구해 보겠노라고 하니까, 동옥이가 인가(人家) 많은 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다 외딴 집을 구하는 수밖에 없다는 동욱의 대답이었다.

[A] 그 뒤로는 원구도 생활에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 가까이나 장마로 놀고 보니 자연 시원치 않은 장사 밑천을 그럭저럭 축나게 된 것이다. 원구가 얻어 있는 방도 지리한 비에 습기로 눅눅해졌다.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부자리에까지도 곰팡이가 끼었다. 그의 마음 속까지 곰팡이가 스는 것 같았다. 이런 날, 이런 음산한 방에 처박혀 있자니, 동욱과 동옥의 일이 자연 무겁고 우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점심 때가 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 곰팡이 슨 속을 씻어 내리며, 동옥이도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갔다.

낡은 목조 건물은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 빗속에 서 있었다. 유리 없는 창문에는 거적도 그대로 드리워 있었다. 그러나, 동욱이, 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 나오는 사나이는 동욱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느냐는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는 생겼으되 맺힌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사십 전후의 그 사나이는, 아하 당신이 정(丁) 뭐라는 사람이냐고 하고 대답 대신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주인이노라 하고 나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그 뒤 동옥 역시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동욱이가 안 돌아오는 지는 열흘이나 되었고 동옥은 바로 이삼 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 (㉠)

원구는 더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받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 몇 걸음 걸어가다가 되돌아와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러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이거 원, 하며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 벌어졌다. 그리고는 자기 여편네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 대접할 수는 없으나 좀 올라와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고 권하는 것이었다.

무슨 재미로 쉬어 가겠느냐고 하며,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하며 사실은 동옥이가 정(丁) 누구라고 하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 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어 없앴다는 것이다. 그래도 아무 말 않고 멍청히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동욱은 아마 십중팔구 군대에 끌려나갔을 거라고 하고, 동옥은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며 가끔 밤중에 울기

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 버렸다는 것이다.

죽지나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 굶어 죽든 ……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은 꾸려 갖고 간 모양이니 자살을 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긴 하지만 얼굴이 고만큼 밴밴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지껄이는 것이었다. 얼굴이 고만큼 밴밴하고서야 어디 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펄쩍 들어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구석에 의식하면서도, 천근의 무게로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이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키었다.

이놈, 네가 동옥을 팔아먹었구나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원구는 호박 덩굴 우거진 밭두둑 길을,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적거리는 다리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손창섭, 「비 오는 날」-

23. **독서 모임에서 이 소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할 때, 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끊임없이 몰락하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 개인적인 삶의 절망이 단지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될 수는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② 전쟁 직후의 곤궁한 생활로 인해 삶의 의지를 상실해 가는 피폐한 젊은이들의 모습을 음울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설정하여 독특하게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③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의 비정한 흐름에 휘말려 상처받는 과정을 통해 진실과 정직이 통하지 않는 당시 사회의 병폐를 고발하고자 한 작품입니다.
④ 육체적, 정신적인 결핍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하여 온전한 삶은 자신의 삶에서 결핍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빈곤한 사람들의 절망을 드러냄으로써 빈곤은 결코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②

24. **이 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A]에 나타난 '비'의 기능을 정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생계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② 인물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다음 행동을 유발하고 있다.
③ 인물들을 무기력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배경적인 조건이다.
④ 심리적인 위축감을 형성하며 인물을 절망의 극으로 몰고 간다.
⑤ 암울하게 펼쳐질 등장 인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④

25. **㉠부분에 〈보기〉의 내용을 추가한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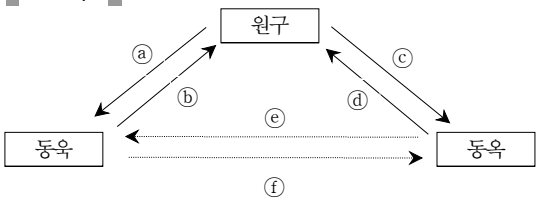
원구의 궁금해 하는 표정에도 아랑곳없이 주인 사나이는 원구의 손에 들린 보자기만 힐끔힐끔 쳐다볼 뿐이었다. 원구는 눈앞의 것들이 컴컴하게만 보였다. 남겨 놓은 편지는 없냐는 말에 주인 사나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런데 "설마 죽지는 않았겠죠……?"라는 원구의 말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로 완강히 고개를 저으며 "암, 죽진 않았지! 그럼!"이라고 단언하는 것이었다. 원구는 앞이 노래지는 느낌이었다.

① 감각적인 표현을 이용하여 원구의 내면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시간의 경과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원구의 조바심이 더욱 심화되도록 하고 있다.
③ 뒤에 이어지는 주인 사나이의 행동과 결부되면서 그의 비열함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④ 편지에 대한 원구의 기대를 드러냄으로써 편지 분실에 대한 그의 허탈감을 강화하게 한다.
⑤ 주인의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추가하여 결말에서 형성되는 원구의 의심에 타당성을 더해 준다.

②

26. **〈보기〉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드러나는 중심 인물들 간의 갈등이다. 이 작품의 결말과 관련지어 생각할 때, 〈보기〉의 갈등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동욱의 마음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의사를 밝히지는 않음.
ⓑ 원구가 동옥이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함.
ⓒ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끼긴 하지만 그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함.
ⓓ 원구에게 호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표현하지는 않음.
ⓔ 동옥에게 의지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신뢰하지는 않음.
ⓕ 동옥을 안쓰러워하면서도 짐스럽게 여김.

① 각 인물 사이에 진정한 교감이 없었기에 결국 비극적 이별에 이르게 되었군.
② 바라는 배경은 인물 사이의 갈등을 형성하는 요인이자 해소하는 요인도 되는군.
③ 희생 정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인간 관계는 결국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보여 주는군.
④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갈등이 정리되는군.
⑤ 이 글의 인문들은 시종일관 불신 풍조가 팽배한 당시 사회의 갈등 분위기를 잘 드러내는군.

①

소설 문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은 다 그리셨어요?"

제일로 궁금하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에 있어요? 좀 봐도 될까요?"

무릎에 앉았던 막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옷방으로 난 장지를 열었다. 나는 그제야 오늘 부인이 애들을 옷방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전등이 없는지, 있는데도 안 켰는지 옷방은 어둑한데 80호 정도의 캔버스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고 넓지 않은 방바닥은 온통 빈틈없이 어지러져 있었다. 테레빈유의 냄새가 확 끼쳤다.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칫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우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枯木)*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톨도톨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우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한발(旱魃)*에 고사한 나무 –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이 없는 한발 – 만일 그런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발…… 무채색의 오톨도톨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왜 그런 잔인한 한발이 고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캔버스에서 보았을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꼬마는 잽싸게 장지문을 닫아 버렸다.

향긋한 생강차가 식어가는데 나는 마실 구미를 잃었다.

나는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감상안이 거의 없지만 그림을 단순하게 사랑하고 즐겨 왔었다. 국민 학교 교실 벽을 장식한 그림에서부터 화랑에 전시된 유명 무명 화가의 그림들, 또 인쇄 잘된 화첩의 대가의 그림들을 사랑했다.

나는 그런 그림들에서 어떤 언어를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빛과 빛깔을 즐겼었다. 삶의 기쁨이 여러 형태의 풍성한 빛으로 나타난 그림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의 그림에 대한 눈은 오색 풍선을 (ⓐ)하는 아이들처럼, 포목점 앞에서 아름다운 천을 (ⓑ)하는 여인처럼 소박하고 단순했다.

내 이런 소박한 감상안은 그의 그림에 적지아니 당혹하고 있었다.

<중략>

S회관 화랑은 3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마치 화랑을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裸木)*을 보았다.

나는 좌우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 놓고 빨려들 듯이 곧장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슬히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닯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춥디 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 나목을 저리도 의연(毅然)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이리라.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목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 박완서, 「나목」 –

*__고목(枯木)__ : 말라서 죽어 버린 나무. '죽은 나무'로 순화.
*__부유(浮遊)__ : 물 위나 물 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__한발(旱魃)__ : ① 가뭄을 맡고 있다는 귀신. ② 심한 가뭄. '가뭄'으로 순화.
*__나목(裸木)__ : 잎이 지고 가지만 앙상히 남은 나무.

2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기 위해 행동을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② 작중 상황과 어울리는 배경을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제시하였다.
③ 서술자는 사건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④ 인물들의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통하여 인물간의 관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⑤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 직접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여 작품 내용을 신빙성 있게 하였다.

⑤

28. **〈보기〉를 '나'가 '옥희도의 집'을 다녀와서 쓴 일기라고 가정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오늘 옥희도 씨 집에 다녀왔다. 그의 부인에게 오랫동안 궁금해 하던 것을 물어 보았다. ⓐ 그림을 다 그렸는지에 대해 먼저 물었다. ⓑ 그 질문을 하고서 그림을 보게 되었다. ⓒ 그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가슴에 와닿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 화면 전체가 오톨도톨한 질감을 주는 것은 정말이지 독특했다. 그것은 섬뜩한 모양의 고목이었다. ⓔ 옥희도 씨의 고통스러운 삶이 연상되어 한편으로 숙연해지기도 하면서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의아하기도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③

29. **㉠에 담긴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
② 작품을 화가의 삶과 관련해서 보게 되었다.
③ 미술품에 대한 감식안이 많이 발전하였다.
④ 미심쩍은 문제에 대해 분명히 알게 되었다.
⑤ 그림은 어느 곳에 놓이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①

소설 문학

30. **위 글의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보기〉의 밑줄 친 시어 중에서 찾는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렇게 모두 잃어버리며 씻어야 하던 동안 / 나의 아픔은 정녕 참담하였습니다. //
초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오묘한 현금의 가락으로 굽이쳐 오던 푸른 절기의 한 때가 마법의 연기 모양 다시 그 어느 손 끝에 휘감겨 사라지던 때 //
가을이여 / 육중한 천체인 양 거역키 어려운 당신의 가슴팍이 장려한 석양을 이끌고 나의 눈물 속으로 / 잠겨들었습니다. //
꽃을 피움이 도시 열매를 맺기 위함이어니 잎을 떨어뜨림이야 진실로 황금처럼 다져진 한 개 알몸만을 존졸히 지킴에 여념되는 때문이라면야.

– 김남조, 「나목(裸木)」 –

① 초원 ② 가을 ③ 석양
④ 잎 ⑤ 알몸

⑤

31. **ⓐ와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추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을 받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경배'가 적절하겠어.
② 눈을 통해 대상을 관찰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식별'이 적절하겠어.
③ 어떤 것을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동경'이 적절하겠어.
④ 여럿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고르는 것이니 '선택'이 적절하겠어.
⑤ 철없는 어린아이가 막무가내로 매달린다는 내용이 있으니 '집착'이 적절하겠어.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대, 네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입니까?"

"우리 반을 위해서 네 협조를 받고 싶다는 얘기다. 물론 나는 네가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일이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반 전체를 위한 너의 조언이다. 어때 협조해 줄 수 있겠지?"

㉠ 나는 얼굴에 열기가 끼쳤다. 이것은 치욕이었다. 담임은 나를 자신의 첩자로 삼으려는 것이다. 1학년 때도 그랬다. 나는 담임선생이 원하는 대로 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담임에게 알렸다. 그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시치미떼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통쾌한 일이었다. 아이들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바지했다고 하는 자부였다. <우리>를 위해서 내 힘이 쓰여지고 있다는 기꺼움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자질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아이들에게 따돌림받았다. 나는 한낱 <우리>의 힘을 해치는 담임의 첩자였을 뿐이다. 나를 이용해 먹은 담임이 그 사실을 새 담임에게 인계하는 배신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울화통이 터질 일이었다.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나는……"

내 표정이 꽤 굳어 보였던 모양이다. 담임선생은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다만 나는 인간적인 면에서 네 도움이 받고 싶었을 뿐이다"

"선생님, 그런 일이라면 임형우가 잘 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염려하는 최기표도 형우가 잘 다스려 나갈 겁니다. 내일 당장 형우를 반장에 임명하세요"

"그럴까? 네 말대로 임형우가 최기표를 잘 다스려 준다면 고맙겠지만…… 내 생각엔 최기표를 부반장에 임명하면……"

"선생님, 기표 한 개인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표의 힘을 빼어 반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담임은 무슨 소리냐는 듯 내 얼굴을 뻔히 치어다보다가 음모의 한 귀퉁이를 드러내 보인 무안감을 감추기라도 하듯,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는 그런 힘은 아예 빼어버리는 게 좋은 거다"

ⓐ 기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그런 것에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 이렇게 말하려다 나는 그만두었다. 그 대신,

ⓑ "선생님, 기표는 유급생인데다 여러 번 정학을 당했잖아요. 그런 아이를 간부로 임명하면 아이들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기표가 학교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교단 위에 서서 아이들 한테 애원하는 광경은 생각만 해도 불쾌했다. 누가 ㉡ 사자를 울 속에 넣어 길들이는 발상을 처음 했는가. 나는 내 허벅지의 상처를 결코 격하시키고 싶지 않았다.

춘계 교내 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해진 체육복 외에도 마스게임*용 추리닝 한 벌을 사야 했다. 협동심과 조화 속의 미를 창조하는 데 그것은 없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툴툴거리는 아이도 몇 없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들도 그것을 모두 준비했다. 그러나 우리 반에 단 둘뿐인 재수파*들은 끝내 그것을 사 입지 않았다. 담임이 말했다.

"두 사람 때문에 반의 일사불란한 결속이 깨질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집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담임이 두 사람 것을 준비했다. 받아주면 고맙겠다"

한 아이가 기표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다. 그러나 기표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담임선생이 그 추리닝을 기표와 또한 아이의 책상 위에 놓은 다음 교실을 나갔다.

담임선생이 교실을 나가기가 무섭게 기표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그 추리닝을 찢기 시작했다. 너덜너덜 조각난 추리닝을 쓰레기통 쪽으로 던졌다. 다른 한 아이가 기표처럼 그렇게 추리닝을 찢었다. 기표가 반의 총무를 맡고 있는 정수라는 애한테 다가갔다.

㉢ "야, 네 추리닝 나 줄 수 없냐?"

정수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정수 뒤의 애한테도 같은 말을 했다.

"쟤도 나처럼 돈이 없어 못 사 입었다. 네꺼 좀 얻자. 줄래?"

정수 뒤에 앉은 애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반 66명은 마스게임용 추리닝을 다 사 입었다.

–전상국, 「우상의 눈물」–

*일사불란(一絲不亂) : 한 오리 실도 엉키지 아니함이란 뜻으로, 질서가 정연하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마스 게임(mass game) : 집단적으로 행하는 맨손 체조나 율동. 단체 유희 · 단체 체조 · 집단 체조(우리식 영어).
*재수파(再修派) : 재수를 한 집단(당시에는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음).

32. 위 글에 나타난 사건 전개의 축을 이루는 갈등의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표를 길들이려는 학급 담임 선생과 그것을 막으려는 '유대'의 갈등
② 기표를 길들여 학급을 장악하려는 담임 선생과 그것에 반항하는 '기표'의 갈등
③ 학생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기려는 담임 선생과 그것을 거부하는 '유대'의 갈등
④ 학생들을 억압하는 담임 선생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기표'와 '유대'의 갈등
⑤ 학급의 주도권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유대'와 '기표'의 충돌을 막으려는 담임 선생의 내적 갈등

②

33. ㉠에 담긴 심리에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고통스러움 ② 당황스러움
③ 치욕스러움 ④ 혼란스러움
⑤ 낭패스러움

③

34.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의 의미를 바르게 해석한 것은?

보 기

'나'의 속 마음 : 새 담임 선생님은 대단히 치밀한 분인 것 같다. 2학년으로 진급하고 처음에는 내가 임시반장을 맡았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반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지만 나는 적임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서 형우를 추천했다.

담임 선생의 구상 – (㉡)

	사자	울(우리)	길들이기
①	기표	유급	공부를 열심히 하다
②	기표	정확	단련시키다
③	기표	부반장	힘을 빼다
④	유대	반장	모범생이 되다
⑤	형우	반장	보호하다

③

35. ㉢에 대한 평으로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을 낮추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대화 방법이야.
② 발화의 상황으로 보면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춘 것 같군.
③ 겉으로는 물어 보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 완곡한 표현이야.
④ 외형상으로는 완곡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어.
⑤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야.

④

36. ⓐ와 ⓑ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바꾸었다.
② 관조적인 태도에서 몰입적 태도로 바꾸었다.
③ 비판적인 태도에서 순응적 태도로 바꾸었다.
④ 비유적 표현에서 직접적 표현으로 바꾸었다.
⑤ 직설적 표현에서 우회적 표현으로 바꾸었다.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줄에서 나온 몇 명의 남자아이들이 나를 향해 걸어왔다. 줄 밖 그늘에 있던 아이들까지 왔다. 그 중의 한 아이가 "형씨, 나 좀 봅시다." 했다. "뭐요?" 내가 묻자, "당신이 우리 회장님 아들이라고 아이들이 그러는데 사실이오?" 건방진 말투로 물었다. 내 안에서 무엇이 욱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누렇고 모가진 얼굴에 유난히 눈만 살아 움직이는 듯한 아이들이 나를 둘러쌌다. 그리고, 적의와 반감을 나타내는 짧은 노랫소리를 나는 들었다.

㉠ 우리 회장님은
마음도 좋지.
거스름돈을 쓸어
임금을 준대.

아주 짧았지만 상상도 못했던 노래였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른 공원을 돌아볼 수 없었다. 보나마나 나이보다 작은 몸뚱이에 감춘 적의와 오해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아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에서 나를 둘러싼 아이들이 나의 표정을 뜯어보면서, 우.리.회.장.님.은.마.음.도.좋.지.거.스.름.돈.을.쓸.어.임.금.을.준.대, 같이 입을 벌렸다. 웃지도 않고, 나무 위 매미의 울음소리보다 작게. 그래서, 법정 경고판 앞쪽 줄에 선 사람들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회사 비서실 사람들이 어디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했다. 우리의 명예와 상관이 있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명예는 물론 나 자신의 명예도 지킬 수 없었다.

두 형이라면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참담한 기분으로 몰아넣었다. ㉡ 마음이 집으로 달려갔다. 내 마음은 아버지의 22소구경 권총을 주머니에 넣은 다음 연발 엽총에 작렬탄을 장전해 들고 뛰어왔다. 나는 그들을 겨냥했다. 쏠 필요는 없었다. 나를 둘러쌌던 공원들이 아들의 판결을 보기 위해 막 도착한 부인에게로 달려갔다. 숙부를 죽인 살인범이 부인의 큰아들이었다.

<중략>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독재적인 아버지는 항상 그의 가족을 괴롭히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못한 사람들일수록 명령하기를 좋아하며 복종을 요구한다. 나는 모르는 난장이를 생각했다. 그는 자식들의 작은 잘못도 결코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잘 때리고, 벌도 심한 것으로 골라 주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는 잠을 안자는 독재자였을 것이다. 그의 권력은 사랑, 존경, 믿음을 모

르는 그 자신의 성격적 결함이 사용하게 한 무서운 매와 벌 때문에 바른 것이 못 되었을 것이다. ㉢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의 큰아들은 공격목표를 잃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없게 길들여진 큰아들의 그 불확실한 공격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결국 숙부를 죽였다. 그때 법원에 닿아 비탈길을 올라오는 사촌을 잡고 나의 생각을 말했는데 사촌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손을 들어 저었다.

"아냐."

사촌은 간단히 말했다.

"네가 틀렸어. 그가 공판정에서 한 말을 그대로 믿어야 돼.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도와 한 일을 난 알아."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이라도 두 형이 사촌을 몰아낼 음모를 꾸민다면 나는 기꺼이 형들 편에 가담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다. 사촌은 불볕 속에서 땀을 닦았다. 닫혔던 법정문이 열리자 공원들은 안으로 밀려들어갔다. 우리는 다른 문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은 시원했다.

"우리 아버지들이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랬지?"

내가 물었다.

"이들을 괴롭혔어."

방청석 공원들을 돌아보며 사촌이 속삭였다.

"인간을 위해 일한다면서 인간을 소외시켰어."

㉣ "형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근사해."

내가 말했다.

"사실은, 공장을 지어 일을 주고 돈을 주었지. 제일 많은 혜택을 입은 게 바로 이들야."

사촌이 웃었다. ㉤ 그 시간에 그 법정에서 웃은 사람은 사촌밖에 없었다. 피살자의 아들이 살해범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며 웃는다는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은강 공장 노동조합 간부인듯한 여자아이가 내가 모르는 그 난장이의 부인과 아들. 딸을 피고석 뒤쪽 나무의자로 이끌어 앉혔다. 방청석은 이미 꽉 차버렸는데도 계속 들어오려는 바깥사람들로 문 쪽은 어수선했다. 정리가 방청인들을 헤치고 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았다.

<중략>

[A] 나는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고, 깨기 직전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물을 쳤다. 나는 물안경을 쓰고 물 속으로 들어가 내 그물로 오는 살찐 고기들이 그물코에 걸리는 것을 보려고 했다. 한 떼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지느러미만 단 큰 가시고기들이었다. 수백 수천 마리의 큰 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 와 내 그물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와 그물을 걷어 올렸다. 큰 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라왔다. 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 천 수 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졌다.

그렇게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치다 깼다.

-조세희,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37. 〈보기〉는 이 소설을 읽은 후 가진 독서 모임에서의 대화이다. 작품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은 사람은?

보 기

진수 : 이 소설은 핍박받는 노동자와 착취하는 자본가 사이의 대립을 주된 갈등의 축으로 삼고 있어.

민주 : 그런 대립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이 군더더기 없는 짧고 냉철한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거야.

현민 :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중첩시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어.

강혁 : '나'는 자본가 계급이 지닌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로, '나'의 사고를 파악하는 과정이 곧 현실의 모순을 실감하게 되는 과정이 되고 있어.

효선 :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소재를 사용하여 두 계층의 대립적 관계를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야.

① 진수 ② 민주 ③ 현민 ④ 강혁 ⑤ 효선

③

38. 이 글에 나오는 인물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우리 아버지들'이 바로 그런 경우인 거야.
② 많은 '공장 직원'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 거로군.
③ '사촌'은 '나'를 보며 쇠 귀에 경 읽는 듯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④ '아이'들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듯 행동하다가 낭패를 봤군.
⑤ '나'는 노동자들을 보며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③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 : 시나리오로 꾸민다면 화면이 겹치는 오버랩(O.L.)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③ ㉢ : 사건의 원인을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④ ㉣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 : 자신과 대립되는 의견을 지닌 사촌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있다.

③

40. **〈보기〉는 이 글과 함께 연작으로 묶여 있는 '뫼비우스 띠'의 일부이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바탕으로 이 글을 해석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사는 분필을 들고 돌아섰다. 그는 칠판 위에다 '뫼비우스 띠'라고 썼다.

"제군이 이미 교과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 역시 입학 시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 주기 바란다. 면에는 안과 겉이 있다. 예를 들자. 종이는 앞뒤 양면을 갖고 지구는 내부와 외부를 갖는다. 평면인 종이를 길쭉한 직사각형으로 오려서 그 양 끝을 맞붙이면 역시 안과 겉 양면이 있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꼬아 양 끝을 붙이면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즉 한쪽 면만 갖는 곡면이 된다. 이것이 제군이 교과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뫼비우스의 띠이다. 여기서 안과 겉을 구별할 수 없는 곡면을 생각해보자."

① 사회적 계층은 달라도 모든 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②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모순된 상황을 짐작하게 해 준다.
③ 등장 인물들이 숨기고 있는 의도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해 준다.
④ 왜곡된 현실에서는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⑤ 자본가가 원하는 성과와 노동자가 원하는 성과가 결국 동일한 것임을 깨닫게 해 준다.

②

41. **[A]를 영상물로 제작하기 위해 다음처럼 계획을 세웠다. 표현 의도가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보 기

나레이터 목소리	화면 내용
꿈속에서 그물을 쳤다. 나는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가 내 그물로 오는 살찐 고기들이 그물코에 걸리는 것을 보려고 했다.	책상에 앉아 회의하며 이윤추구에 골몰하는 자본가의 모습 ……………………㉮
한 떼의 고기들이 내 그물을 향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살찐 고기들이 아니었다. 앙상한 뼈와 가시에 두 눈과 가슴지느러미만 단 큰 가시고기들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모습 ……………………㉯
수백 수천 마리의 큰 가시고기들이 뼈와 가시 소리를 내며 와 내 그물에 걸렸다. 나는 무서웠다. 밖으로 나와 그물을 걷어 올렸다. 큰 가시고기들이 수없이 걸려 올라왔다.	억눌릴 대로 억눌린 노동자들의 분노의 눈빛 ……㉰
그것들이 그물코에서 빠져나와 수천수만 줄기의 인광을 뿜어내며 나에게 뛰어올랐다. 가시가 몸에 닿을 때마다 나의 살갗은 찢어졌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시위, 파업 등으로 자본가에게 대항하는 모습 …………㉱
그렇게 가리가리 찢기는 아픔 속에서 살려 달라고 외치다 깼다.	결국은 자본가들도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심정에 공감하게 되는 모습 …㉲

① ㉮　② ㉯　③ ㉰　④ ㉱　⑤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일제동작이 되질 못하고 저마다 뒤죽박죽이어서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고참 교수의 분노를 사고 말았다. 간격을 넓혀 간다든가, 분대별로 방향을 바꿔 일단 흩어졌다가 원위치로 차례차례 되돌아와 다시 대오를 정비하는 등, 어느 정도 기계적 정확성 아니면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동작일 경우에는 가뜩이나 그러했다. 그래서 강명록 교수는 영 가망 없이 자주 틀리는 몇 사람을 따로 불러내어 실내 체육관 앞 백화나무를 구보로 돌아오는 선착순을 시키곤 했다.

"제군들은 썩었다!"

적당한 사이를 두고 연방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이세들의 앞날을 올바로 인도할 것인가. 본인은 그저 한심스럴 뿐이다!"

그것은 실로 부당한 대우였다. (　　　　　㉮　　　　　)

"하낫 둘, 하낫 둘, 간격 좁혀이 갓! 오와 열, 오와 열! 소대원간 간격 십 센치! 기준분대 너무 빠르잖나!"

교수의 주문에 응해서 우리는 제꺼덕 몸을 놀렸다. 동령에 맞추어 기준분대는 반걸음만 전진하고, 나머지 분대는 반우향우하여 옆 사람과의 어깨 사이가 더도 덜도 아닌 십 센티가 되도록 곁눈질을 해가며 용의주도하게 간격을 좁힌 다음, 기준분대와 마침내 평행이 이루어지는 순간 슬그머니 반걸음 전진해나갔다. 소대 전체가 한 덩어리로 오밀조밀 뭉쳐지자 정식 간격에서는 맡을 수 없던, 분명히 자기 것 아닌 남의 땀 냄새가 사방에서 역하게 풍겨져 왔다.

㉠ 성의껏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교수의 입에서는 대고 잔소리가 튀어나왔다. ㉡ 마치 간격이 십 센티를 벗어나거나 오와 열이 행여 삐딱하게 되는 날이면 당장 자기 봉급이 절반으로 깎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무정하게 구는 것이었다.

그의 음성에는 언제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입술이나 턱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큰 목청을 낼 줄 알았다. 반평생을 연병장 아니면 운동장에서 보낸 사나이답게 그는 별로 힘도 안 들이고 군중을 휘어잡는 재간을 터득하여 비상금처럼 휴대하고 다녔다. 더군다나 악조건의 기후마저 그의 위엄을 배가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두껍게 생고무를 댄 농구화 밑창을 통해서 후끈거리는 지열이 고스란히 발바닥에 느껴졌다. 앞사람, 그리고 옆 사람들의 발부리에서 이는 먼지가 뽀얗게 오르는 속을 겨우 뚫어 넘고 나면 어느새 또 그 다음 먼지구름이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운동장의 모래는 사금가루라도 달팍 쏟아 부은 듯 저마다 하나씩들 쬐꼬만 태양이 되어 무수히 반짝이면서 까끌까끌 유난히도 시선에 밟혔다.

우리의 마지막 불평마저 그놈의 더위가 앗아가 버린 지 이미 오래였다. 당최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불평들인 데다가 또 그런다고 사정 봐줘가며 놓아먹일 강교수도 당최 아니었다. ㉢ 우리에겐 다만 복종이 있을 뿐이었다.

<중략>

<중간 줄거리>　그러던 어느 날 지겨운 '나'를 비롯한 대학 동창 세 명은 고교 동창인 국어 선생 이문택의 충동질에 휘말려 낮술을 마시

고는 오후 일과를 거르게 된다. 이튿날 세 사람은 용서를 빌러 강교수 집에 찾아갔다가 강교수와 그 친구의 술자리에까지 합석하게 된다. 술이 오른 강교수가 일행에게 제식 훈련의 변천에 대해 일장 훈시를 하던 중, 술집 안에 있던 한 무리의 청년들이 시비를 걸어오자 이문택이 몸을 날리면서 일이 크게 번진다.

㉣ 달리는 택시 안에서 강교수는 내내 눈을 질끈 감고 앉아 있었다. 그 역시 취기가 이미 말끔히 가신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시종 말이 없었다. 그는 방금 전 술자리에서 벌인 즉흥 강의에 대해서 심히 후회를 느끼는 눈치가 여실했다. ㉤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듬직한 체구에 걸맞지 않게시리 제자 보는 데서 솔선해서 먼저 그렇게 벌벌 떨 수 있단 말인가.

"뒤에 남은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걸자 강교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별일 없을 거야. 최교수가 그만한 일은 능히 처리할 위인이니까."

그러나 강교수의 그 말투 속에는 반드시 별일 없을 것만 같지는 않은 낌새가 엿보였다. 아마 별일 없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었다.

한참 후에 강교수는 또 이렇게 중얼거렸다.

"자네도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하겠지?"

"뭐 별로....."

나는 우선 이렇게 얼버무려두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 과음 끝에 주사가 약간 지나쳤을 뿐이야. 내 말에 다른 뜻은 전연 없었어. 나 좀 내려주게. 걸으면서 머릴 좀 식히고 싶어."

더 이상 강교수를 붙잡고 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체 없이 나는 차를 세우도록 했다. 강교수가 내리자 기사 양반이 백미러 속으로 나를 유심히 쏘아보며 행선지를 댈 것을 재촉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저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네거리 하나가 얼핏 눈에 띄었다. 그 네거리에 다다르기 전에 행선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저지르고 관여한 만큼의 몫은 내 어깨로 감당하고 싶은 심정이 되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한 끝에 기사 양반의 그 쏘아보는 눈에게 차를 뒤로 돌리도록 부탁했다.

"아까 탔던 자리로 되돌아갑시다."

-윤흥길, 「제식 훈련 변천 약사」-

42. 작중 상황에 미치는 역할이나 태도가 [A] 부분에서의 '강 교수'와 가장 유사한 인물은?

① 손창섭, 「육체추」 : 자선 사업가인 서 목사는 장애자 수용소인 성혜애호원의 원장이다. 그는 각계각층의 저명 인사들을 부지런히 불러들여 장애인들의 실상을 보여 줌으로써 그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낸다. 그러다가 환자들의 원성을 사 결국 야반 도주를 하고 만다.

② 전광용, 「꺼삐딴 리」 : 의사인 이인국은 자신이 일본 제국 대학 출신임을 증명해 주는 회중 시계를 애지중지한다. 일제 때 일본말을 배운 것이 출세의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는, 러시아가 힘을 쓰는 세상에서는 러시아말을 배워야 한다며 아들을 러시아로 유학 보낸다.

③ 채만식, 「미스터 방」 : 방삼복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머슴살이 등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해방 이후 우연한 기회에 서툰 영어 몇 마디로 미군 소위의 통역이 되어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 거들먹거리는 방삼복 앞에서 친일 행위로 재산을 모은 백 주사마저 머리를 조아린다.

④ 이호철,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 : 분위기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던 오후의 이발소에, 온통 검정색 옷차림에 머리가 짧고 눈매가 날카로운 한 사내가 손님으로 들어온다. 주인, 종업원, 손님을 가리지 않고 눈빛만 마주쳐도 빠릿빠릿하게 행동하라고 호통치는 사내의 태도에 압도된 이발소 안의 사람들은 아연 긴장한다.

⑤ 김소진, 「자전거 도둑」 : 구멍가게를 하는 아버지는 도매상에 잡화를 떼러 갔을 때 주인 몰래 소주 두 병을 자루에 넣었다가 주인인 혹부리 영감에게 들킨다. 조숙했던 '나'는 아버지가 처한 난처한 상황을 간파하고 자신이 그 죄를 뒤집어 쓴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하라는 혹부리 영감의 요구에 아버지는 '나'의 따귀를 후려갈긴다.

④

43. 위 글을 <보기>의 시와 연관지어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 자기들끼리 끼룩끼룩 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 일렬 이열 삼렬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 낄낄대면서 / 깔쭉대면서 /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메고 /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위 글의 내용	<보기>의 표현
①	소대 전체가 오와 열을 맞추어 한 덩어리로 움직임 →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시대 현실 암시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 경청한다"
②	강교수는 힘 안 들이고 군중을 휘어잡는 재간을 터득하고 있음 →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어적으로 표현함.	"삼천리 화려 강산"
③	오와 열이 조금이라도 삐딱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짐 → 강압적인 군사 문화가 지배했던 비정상적 현실 암시	"이 세상"
④	강교수가 택시에서 내린 뒤 '나'가 일행에게 되돌아감 →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고자 함.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 낄낄대면서 / 깔쭉대면서."
⑤	세 인물이 오후 강좌를 까먹은 채 음주와 오락을 함 → 답답하고 억압된 현실로부터 벗어나려 함.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④

44.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하여 써 보았다. 앞뒤의 흐름을 참조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우리는 논산 훈련소의 신병이 아니었기에 그와 같은 책벌을 달게 견뎌야 할 이유가 없었다. ⓑ 지금의 처지가 비록 피교육자 신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엄연히 사회인이었다. ⓒ 다만, 방학을 이용해서 강습받으러 온 체육 교사들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느냐 못 따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었다. ⓓ 그런데도 강교수는 그 같은 약점을 십분 활용하여 시종 몰풍사납게 굴고 있었다. ⓔ 그것이 우리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그 반발을 급기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⑤

45. ㉠~㉤의 표현 속에 대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태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때 숙향이 물에 뛰어드니 검은 소반 같은 것이 물밑으로부터 숙향을 태우고 물 위에 섰는데 편하기가 만석 같았다. 이윽고 오색구름이 일어나며 사양머리*를 한 계집아이가 연엽주(蓮葉舟)를 바삐 저어 숙향을 향하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귀하신 몸을 어찌 이렇듯 가벼이 버리십니까? 저희는 항아(姮娥)의 명으로 부인을 구하러 오다가 옥하수에서 여동빈 선생을 만나 잠시 술을 마셨는데, 하마터면 부인을 구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하고 용녀(龍女)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디로부터 와서 구하셨습니까?"

하니 용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전에 사해 용왕이 수정궁에 모여 잔치할 때 저의 사랑하는 시녀가 유리종을 깨뜨렸기에 행여 죄를 얻을까하여 감추었더니 부왕(父王)이 알으시고 노하여 첩을 반하수 내치심에 수변(水邊)으로 다니다가 어부에게 잡히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때 김상서의 구함을 업어 살아났으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제 부왕이 옥경에서 조회할 때 옥제 말씀을 듣사오니 '소아가 천상에서 득죄하여 김전의 집에 적강*한 뒤로 도적의 칼 아래 놀라게 하고, 표진강에 빠져 죽을 액을 당하고, 노전에서 화재를 만나고, 낙양옥중에서 죽을 액을 지낸 후에야 태을을 만나게 하라.' 하시고 물 지키는 관원을 명하여 '기다렸다가 죽이지는 말고 욕만 뵈어 보내라.' 하시기에 제가 특별히 상서의 은덕을 갚고자 하여 자원(自願)하여 왔습니다. 이제 그대가 또 와서 구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숙향이 선녀더러 물어 말하였다.

"그는 어떠한 사람인데 강물을 평지같이 다닙니까?"

㉠ 선녀 말하기를,

"그는 동해 용왕의 딸로서 전일 부인의 부친 은덕으로 살아났음에 이제 와서 부인을 구하고 가는 것입니다."하였다. 숙향이 말하기를,

"저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에서 고행하다가 더러운 이름을 쓰고 차마 세상에 있지 못하여 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한 것인데 그대들이 멀리까지 와서 수고로이 구하여 주시니 감격하여이다."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께서 인간진애(人間塵埃)에 잠겨 저희를 몰라 보십니다."

하고 이슬같은 차를 주며 말하였다.

"이를 먹으면 자연 알게 되실 것입니다."

숙향이 받아 먹으니 그제야 월궁소아로서 태을과 글을 지어 창화하고 월연단을 훔쳐 태을을 준 죄로 인간 세상으로 적강한 일과 그 아이 둘이 부리던 시녀였던 것이 기억났다. 말미암아 붙들고 반기며 말하기를,

"내가 전생의 죄가 중한 탓으로 부모를 잃고 고생은 하려니와 장승상 댁에서 얻은 누명은 무슨 일이냐?"

하니 선녀가 말하였다.

"부인은 한(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두 하늘이 정하신 것입니다. 장승상집 인연도 다만 십년 뿐이었습니다. 사향이 부인을 모함한 죄로 옥제께서 진노(震怒)하시어 이에 벼락을 내려 죽였으며, 부인의 애매함도 이미 장승상집에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시켜 들에 와서 부인을 찾다가 못 찾고 도로 갔으나 모든 것이 이미 밝혀졌거니와 앞에 또 두 횡액(橫厄)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숙향이 두려워 말하기를,

"지난 일도 망극한데 또 두 액을 어찌하리오? 승상과 부인이 나의 애매함을 알았다고 하니, 그리로 가서 액을 면하고자 하노라."

하였다. 선녀가 말하기를,

"이는 다 하늘이 정하신 것으로 임의로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태을이 있는 것이 장승상집과 거리가 삼천 삼백 리니 서로 만날 길이 아득하고 태을이 아니면 인간 부모도 다시 못 볼 것입니다."

하니 숙향이 말하였다.

"태을이 어디에 있으며 인간 성명은 무엇이냐?"

선녀가 말하기를,

"저번에 항아의 말씀을 들으니 '태을은 낙양 땅에 위공의 자식이 되어 부귀를 누린다.' 합니다."

하였다. 숙향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동시에 적강하여 태을은 어이 영화로이 되고, 나는 어찌 고생하느냐?"하니 선녀가 말하기를,

"당초 부인이 먼저 죄를 지었으므로 궁곤함을 겪게 하였고, 태을은 상제를 근시(近侍)하던 선관으로 상제께서 몹시 사랑하시어 항아의 청으로 부득이 적강은 시켰으나 귀히 점지하셨습니다."

하였다. 숙향이 말하였다.

"태을이 있는 곳이 삼천삼백 리라 하니 태을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가 의탁하며, 우리 부모는 어디가 만나겠느냐?"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이 홀로 가시면 득달(得達)키 어려우니 저희 연엽주(蓮葉舟)를 타시면 순식간에 가실 것이요, 또 천태산 마고선녀가 부인을 구하려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며 능파곡을 부르고 배를 띄우니, 빠르기가 쏜살같아 순식간에 한 곳에 다달으니 선녀가 말하기를,

"부인은 여기서 내려 동쪽으로 가십시오.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하고 동정귤 같은 것 두 알을 주며 말하기를,

"가다가 시장하거든 잡수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니, 숙향이 사례하고 배를 내려 동쪽으

로 향하여 갔다. 배가 고파 선녀가 주던 것을 먹으니, 배가 부르고 천상 일은 다 망연이 잊어버려 인간 일만 생각하게 되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젊은 계집이 외로이 홀로 가다가 욕을 보기 쉬우리라.' 하고 촌가에 비단 옷을 주고 헌 옷으로 바꾸어 입고 얼굴에 검은 칠을 하고 한 눈을 감고 한 다리를 저는 체하며 막대를 짚고 갔다.

–작자 미상, 「숙향전」–

*__사양머리__ : '새앙머리'의 사투리. 조선 시대에 나인이 예장할 때 하던 머리. 머리를 두 갈래로 땋은 후, 그것을 다시 틀어 올려 위아래로 두 덩어리가 지게 하고 댕기로 중간을 묶음.
*__적강(謫降)__ :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 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46. 위 글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동해 용왕의 딸은 숙향의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있다.
② 숙향은 인간 세계에 태어나기 이전에 천상 세계에 속하던 사람이었다.
③ '동정귤 같은 것'은 특정한 기간에 일어난 일을 잊도록 만드는 영약이다.
④ 숙향은 장승상집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⑤ 태을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숙향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

⑤

47. 위 글에 대한 감상을 심화·발전 시킨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나는 숙향의 전생과 이생에 호기심을 느꼈어. 다른 소설들에 나타난 조상들의 세계관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아야겠어.
② 위 글에는 비현실적이며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봐야 겠어.
③ 나는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에 주목하기로 했어. 서술자가 사건의 전면에 나서서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거든.
④ 나는 숙향의 운명이 하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에 주목했어. 우리 조상들의 운명론적 인생관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인 것 같아.
⑤ 숙향과 태을 간의 사랑의 성취가 이 소설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인 것 같아. 염정 소설적 성격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

③

48. 〈보기〉는 영웅 소설에 나타나는 내용 요소를 정리한 것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ㄱ. 고귀한 혈통을 지닌 인물이다.
ㄴ. 비정상적으로 잉태되었거나 비정상적으로 출생한다.
ㄷ. 범인과는 다른 탁월한 능력을 타고난다.
ㄹ. 어려서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를 맞는다.
ㅁ. 구출자 및 양육자를 만나 죽을 고비에서 벗어난다.
ㅂ.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친다.
ㅅ. 위기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승리자가 된다.

① 숙향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웅적 인물의 전형으로 볼 수 있겠어.
② 어려서 부모를 잃었다는 숙향의 말은 기아가 되어 죽을 고비를 맞는 구조와 통하는 것 같군.
③ 선녀와 마고선녀는 위기에 빠진 숙향을 돕는 구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군.
④ 사향의 모함을 받아 쫓겨나는 것은 숙향이 겪어야 할 고난의 일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
⑤ 선녀의 말로 볼 때, 이 소설 역시 영웅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전형적인 결말을 따르겠군.

①

49.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담당한 역할로 적절한 것은?

① 특정한 사회 계층을 대표하며 주제 형상화에 기여한다.
② 서술자를 보조하여 이어질 사건의 흐름을 미리 설명한다.
③ 문제 상황을 해결하여 사건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도록 만든다.
④ 인물에 관한 부정적 정보를 제공하여 독자의 태도를 유도한다.
⑤ 중심 인물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여 사건 진행의 원동력이 된다.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왕비가 보기를 다함에, 전하는 다 듣고 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시더라. 왕비가 기러기를 붙들고 통곡하여 슬퍼하시더니, 이 때 세자 항의가 왕비의 곡성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가 엎드려 여쭙기를,

"모후는 무슨 까닭으로 이렇듯이 비창(悲愴)하십니까?"

왕비가 항의를 보고 잠잠하시거늘 항의가 일어나 사면을 살펴보니 서안에 일봉 서찰이 놓였고 또 기러기를 어루만지시거늘 자세히 보니 이는 곧 성의의 필적이었다. 항의가 말하기를,

"서간을 보오니 성의가 중국에 들어가 입신양명하여 부마가 되었다 하니 이는 부왕의 성덕이거늘 어찌 그리 슬퍼하십니까? 빨리 예단을 갖추어 마중나가시옵소서."

하더라. 왕비가 그날로 예단을 갖추어 중로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 때 상이 항의에게 칙교(勅敎)하기를, '중전을 모시고 떠나지 말라' 하셨다.

차설, 항의가 마음 속으로 헤아리되, '성의가 틀림없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어찌하여 살았으며 이다지 영귀하게 되었는고. 만일 성의가 오면 나의 전후 행적이 발각되겠구나.' 하고 매우 근심하다가 한 계교를 생각하고 노복에게 분부하여 적부리를 부르니, 이 사람은 지혜와 용기가 매우 많았다. 이날 항의가 적부리를 청하여 후히 대접하고 말하기를,

"그대가 나를 위하여 오백 군사를 거느리고 중로에 나가 매복하였다가 성의 일행을 쳐서 함몰시키고 돌아오면 천금의 상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장차 왕이 되는 날 무거운 소임을 맡길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여 성사케 하라."하니 적부가 크게 기뻐 말하기를,

"이 일은 소장의 손끝에 달렸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동궁께서는 다만 후일을 준비하소서."하며 하직하니 항의가 크게 기뻐하며 잔을 잡아 술을 권하며 즐기다가 잔치를 마치고 비밀리에 의논하더니 적부리가 돌아와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더라.

각설, 이 때 부마는 배를 재촉하여 청강에 다다르니 갑자기 중천에 기러기가 슬피 울며 떠오더니 뱃머리에 앉았다. 부마와 공주가 크게 반겨 몸을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네 능히 서간을 전하였느냐?"

하니 ㉠ 기러기가 고개를 들어 답하니 일행이 모두 신기하게 여기며 칭찬하더라. 기러기가 문득 날아 강변으로 떠다니며 슬피 울거늘 부마와 공주 및 모든 사람이 의심하니 공주가 말하기를,

"이제 기러기가 비록 짐승이지만 신통함이 있으니 무슨 변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불길한 징조이니 대비합시다."

하고 데려 온 장수와 군사를 단속하고 또 행장을 끌러 갑주와 창검을 내어 공주가 친히 화복(華服)을 벗고 의갑(衣甲)을 갖추어 뱃머리에 서며,

"부마는 배 안으로 드십시오."

하였다. 부마가 말하기를,

"약하디 약한 공주가 무슨 지혜로 이렇듯 하십니까?"

공주가 말하기를,

"분명 앞으로 불의의 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일행을 보호하는 장수들로써 막지 못하면 첩이 반드시 대적하려 하오니 부마는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하고 곧바로 나아갔다. 강변에 다다름에 본국의 예관이 후대하며 맞으니 위의가 거룩하였다. 이 때 한 줄기 대포 놓는 소리가 나며 한 떼의 군마가 내달아 길을 막으니 이 장수가 곧 적부리라. 머리에는 황금 투구를 쓰고 몸에는 보신갑을 입었으며,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천리준마 위에 높이 앉아,

"너희는 어떠한 도적이길래 무슨 뜻을 품고 감히 우리 나라 땅을 범하느냐?"

하고 큰 소리 치며 달려드니 본국 예관(禮官)이며 부마 일행이 놀라 당황하였다. 본국 사신이 꾸짖어 말하기를,

"내 왕명을 받아 부마와 공주를 모시러 왔는데 어찌 범람(氾濫)한 뜻을 품고 이같이 항거하느냐?"

하니 들은 체도 아니 하고 큰 소리로 꾸짖어 말하기를,

"도적은 빨리 나와 죽기를 대령하라."

하니 위엄이 범 같았다. 공주가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부마 형공의 흉계로다.'하고 수하에 데리고 온 장수에게 명하여 대적하라 하였다.

<중략>

이 때 항의가 적부리 형제에게 약속하여 보내고 소식을 탐지하더니 적부리 형제가 공주의 칼 아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기를 참지 못하여 말하기를,

"내 적부리를 수족같이 여겼는데 부리 형제가 여자의 칼 끝에 영혼이 되었으니 장차 나의 일을 어찌 하겠는가. 반드시 성의를 죽여 후환을 덜리라."

하고 나오더라. 문득 뒤에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내달아 꾸짖어 말하기를,

[A] "나는 당시에 배를 타고 중로에 마중 나갔던 태연이다. 인륜을 모르는 항의는 들어라. 네가 전일 바다에서 어진 대군을 죽이려 하거늘 만류했더니, 칼로 대군의 두 눈을 찔러 모난 판자 쪽에 태워 바다 속에 밀쳤으니 이는 사람의 할 바가 아니다. 천도(天道)가 명감(明鑑)하여 상한 눈을 다시 뜨고, 영화롭게 귀하게 되어 고국에 돌아오니 기뻐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네 홀로 포악하여 윤기를 모르고 골육을 해치고자 하니 무슨 원수로 그러느냐?"

하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칼을 들어 항의의 목을 치니 머리가 땅에 뒹구는지라. 이 때 보는 자 그 누가 상쾌하게 여기지 않으리오? 보고 듣는 사람이 모두 태연을 의로운 남자라고 칭찬하더라. 그러나 태연이 말하기를,

"내 이제 항의를 죽여 장부의 답답함을 덜었으나 왕자를 죽였으니 나로 죽는 것이 옳다."

하고 자결하니 이는 뒷사람을 경계함일러라.

이 때 공주의 행차가 궐문에 이르러 황제의 군사는 별궁으로 들어가고 공주와 부마는 내궁으로 들어가 전하 내외분께 엎드려 배알하였다. 중전이 일희일비하여 공주와 대군의 손을 잡고 등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기를,

"공주는 나의 자부로다."

하시며 대군의 전후 수말을 대강 들으시고 이번에 나오다가 변란 만난 사연을 문답하시고 탄식하시기를 마지아니 하시거늘 공주와 부마가 만단으로 위로하시더라.

–작자 미상, 「적성의전」–

5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인 행복한 결말의 구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
② 공주의 영웅적 성격은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음을 알려준다.
③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순차적 전개 구조를 따르고 있다.
④ 적부리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항의는 입체적 인물로 볼 수 있다.
⑤ 권선징악의 표면적 주제 아래 상층 계급의 비윤리성에 대한 풍자를 감추고 있다.

④

51. 위 글에 인물에 대한 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라와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항의는 난신적자(亂臣賊子)일 거야.
②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적부리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중시하는 인물이야.
③ 왕비는 둘째 아들인 성의에 대한 걱정으로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어.
④ 앞날을 대비하는 것을 볼 때 공주는 용의주도(用意周到)한 성격을 가졌어.
⑤ 부침을 거듭하며 살아온 성의의 삶은 파란만장(波瀾萬丈)했다고 할 수 있어.

②

소설 문학

52. ㉠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철령(鐵嶺) 높은 봉(峯)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孤臣寃淚)를 비삼아 띄어다가,
임 계신 구중심처(九重深處)에 뿌려 본들 어떠리. –이항복–

②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이조년–

③ 한산(閑山) 섬 달 밝은 밤의 수루(戍樓)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적의,
어디서 일성호가(一聲胡笳)는 남의 애를 긋나니. –이순신–

④ 이화우(梨花雨) 흩뿌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秋風落葉)에 저도 날 생각난가.
천 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매. –계랑–

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쳐시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원천석–

①

53. [A]에 나타난 태연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긍정적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고 있다.
② 상대방의 양심에 호소하여 행동의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③ 자신의 월등한 능력을 내세워 상대방의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
④ 윤리적 기준에 어긋난 점을 들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⑤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생각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④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업이 의주에 도임한 후로 매일 사졸 연습하더니, 도적이 다시 와서 부윤의 허실을 알려 하고 압록강에 이르러 의주를 ㉠ 엿보더라. 경업이 이미 그들의 행위를 알고 군사를 명하여, 그 도적을 잡으라 하니, 군사가 명을 받고 내달아 두어 명의 도적을 잡아 오니, 부윤이 높이 앉아 큰 고장으로 각별히 엄치하며 꾸짖기를,

"너희 임금은 금수에 비하리로다. 전일에 명나라 천자께서 너희 생명을 구하였거늘, 도리어 은혜를 배반하고 남경을 범하며, 또 우리 조선을 침노코자 하니 그 무슨 도리이며, 너희가 어찌 나를 당코져 하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너희 왕에게 나의 말을 이르라."

하고 방면하여 주더라. 모든 도적들이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쥐 숨듯 도망하여 돌아가 호왕에게 수말(首末)을 자세히 고하니, 호왕이 머리를 숙이고 침묵하기를 얼마 후에 이렇게 말하더라.

"임경업은 당세의 영웅이라서 가벼이 범하지 못할 것이니, 각별히 다른 묘책을 얻어 처치하리라."하니라.

부윤은 도적이 다시 올 줄 알고 염초, 화전, 도창 등을 많이 준비하여 활 쏘기와 창 쓰기를 익히니, 군사들이 무예 모르는 자 없고 또한 전선을 많이 준비하여 수전을 익히더라.

이 때 호왕이 영아대 등의 팔장(八將)을 가리어 정병 삼만을 거느리고 다시 조선을 치라 하니, 팔장이 명을 듣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에 이르러 물을 건너려 하므로, 부윤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저어 나아가니, 그 빠른 양이 화살과 같았으니, 적진에 다달아 달아나는 배를 급히 쫓으며 화전과 화포를 일시에 놓으니, 적군이 맞아 죽는 자가 태반이더라. 적진이 크게 어지럽거늘, 부윤이 급히 배에 내려 손에 장창을 들고 나는 듯이 적진 중에 들어가 좌충우돌하여 적장의 머리를 베어 내리치니, 적병이 스스로 사산분주(四散奔走)하여 버리더라. 부윤이 일진을 대살하고 군사를 거두니 수급이 오천이고 제장과 군졸이 항복치 아니하는 자 없더라.

이 때 부윤이 관중에 돌아와 승전한 연유를 조정에 장계(狀啓)하니, 상께서 의주 부윤의 장계를 보시고 북방 근심이 없어 침식이 안한하시매, 만조백관이 태평시를 읊어 마음을 적이 놓았더라.

이 때 호왕이 팔장이 패하여 돌아옴을 보고 대로하여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대병을 몰아 조선을 치고자 하나, 의주가 바로 나오면 임경업이 있으니, 능히 지나지 못할 것을 알더라.

이에 용골대 등 여러 장수를 명하여 오만 명의 철기를 거느리고 여차여차 하여 조선을 항복받으려 하니, 용골대 명을 듣고 철기를 거느리고 의주를 버리고 동해로 돌아 위원, 벽동을 지나 주복야행하여 바로 경성을 범하였더라.

<중략>

도원수 김자점이 어디 가서 무슨 계교를 베푸는지 알 수 없으며, 적장 용골대는 군사를 두 길로 나누어 일지군은 어가를 추격하여 남한산성으로 가고 일지군은 세자와 대군 비빈들의 뒤를 추격하여 강화로 가니, 강화 유수 김영진은 좋은 군기를 고중에 넣어 두고 술만 먹고 누웠으니 도적이 무슨 근심이 있으리오. 왕대비와 세자 대군 등을 잡아다가 송파벌에 유진하고 크게 외치기를,

"속히 항복치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 무사치 못하리라."

하는 소리가 남한산성을 진동하더라.

이 때 상께서는 모든 대신과 군사를 거느려 외로운 성 안에 겹겹이 싸여 있어 원한과 통분에 눈물이 비 오듯 하시더라. 그러나 도원수 김자점은 도적을 물리칠 계교가 없어 태연 부동하는 차에 도적의 북소리에 놀라 혼을 잃고 군사를 무수히 죽이고 산성 밖에 결진하니, 군량을 탕진하여 성 안의 군민이 동요되던 차에 도적이 외치기를,

[A] "끝내, 항복치 아니하면 우리가 여기서 과동(過冬)하면서 농사지어 먹고, 천천히 항복받고 떠나가려니와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려고 하느냐? 수이 나와 항복을 하라."

하고 한(汗)이 봉에 올라 산성을 굽어보며, 외치는 소리 진동하니, 상께서 들이시고 앙천(仰天) 통곡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안으로는 양식이 없고 밖에는 강적이 에워쌌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전하며, 또한 양초가 다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과인을 망하게 하심이로다."

–작자 미상, 「임경업전」–

54. 사건 구조를 다음과 같이 보았을 때 인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호왕은 예전에 임경업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 호왕이 조선을 침략하려고 한다. ………………………………… ㉠

임금의 명을 받은 임경업
– 사졸을 조련하여 대비를 철저히 한다. ………………………… ㉡

의주로 쳐들어 온 대병을 임경업이 물리친다.
– 임금은 북방 근심이 없어 침식이 편안해졌다. ………………… ㉢

호왕이 용골대를 시켜 의주를 우회하여 서울을 공격한다.
– 김자점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 ……………………… ㉣

호군이 쳐들어오자 세자와 대군 비빈들은 강화로 피신한다.
– 강화 유수 김영진은 술만 먹고 누워 있다. …………………… ㉤

① ㉠ : 호왕은 배은망덕(背恩忘德)한 사람이로군.
② ㉡ : 임경업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고 있군.
③ ㉢ : 임금은 좌불안석(坐不安席)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군.
④ ㉣ : 김자점은 임기응변(臨機應變)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군.
⑤ ㉤ : 김영진은 숙맥불변(菽麥不辨)과 같이 어수룩한 사람이군.
⑤

55. [A]와 <보기>를 비교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십칠 일의 상(上)이 남대문에 전좌(殿座)하시고 애통교(哀痛敎)를 내리시니, 뜰에 가득한 제신이 아니우는 사람이 없더라. / 이십사 일의 대우(큰 비)가 내리니, 성첩(城堞 :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지킨 군사를 다 적시고 얼어 죽은 사람이 많으니, 상감께서 세자로 더불어 뜰 가운데 서서 하늘께 빌어 가로사되,

"금일 이에 이르기에는 우리 부자가 득죄함이니, 일성 군민(一城軍民 : 온 성 안의 군사와 백성)이 무슨 죄 있겠습니까. 천도(天道)가 우리 부자에게 화를 내리시고 원하옵건데 만민을 살려 주옵소서."

군신들이 들어가시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시더니, 미구(오래지 않음)에 비 그치고, 일기 차지 아니하니 성중인(城中人)이 감읍(感泣)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 「산성일기」 –

①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A]는 왕의 태도가 비관적인데, <보기>의 왕의 태도는 낙관적이다.
③ [A]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고, <보기>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다.
④ [A]와 달리, <보기>는 계절적 상황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⑤ [A]는 성 안팎의 동태를 제시하였고, <보기>는 성 안의 상황만 제시하였다.
⑤

56.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하려고 다음과 같이 시놉시스를 작성하였다. 위 글과 관련한 부분을 촬영할 때에 기획 회의에서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놉시스
· 임경업을 부각시킨다. : 병자호란은 분명히 우리가 치욕적으로 패배한 전쟁이지만 당시의 혼란 상황에서 영웅적 풍모를 유지했으며 그 명성이 국제적이었던 인물임을 부각시킨다.
· 전쟁 영화의 새 장을 연다. : 청나라와 우리나라의 외교 상황과 전쟁을 모두 담아야 하니 복잡한 역사적 장면도 추가하고 웅장한 전쟁 장면도 담아 사실성을 추구한다.
· 당시의 역사를 새로운 각도로 본다. :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국민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① 계절적 배경이 특히 중요하니 눈 덮인 광경이 아름다운 곳을 미리 조사하여 촬영지로 선정해야 합니다.
② 임경업의 영웅적 성격이 잘 드러나게 기골이 장대할 뿐 아니라 연기력이 있는 배우를 섭외해야 합니다.
③ 공간적 배경으로 의주성과 남한산성이 나와야 하는데, 남한산성은 문제가 없지만 의주성을 대체할 곳을 물색해야 합니다.
④ 소품은 시대적 상황에 맞게 준비하되 전쟁과 관련한 기구들이 사실성을 지닐 수 있도록 고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⑤ 호국인들과 대화하는 장면에서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테니 가운데에 통역을 넣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①

57. ㉠에 대한 심화 학습을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학습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 남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숨거나 남이 알아치리지 못하게 하여 대상을 살펴보다.
ⓑ 잘 보이지 아니하는 대상을 좁은 틈 따위로 바라보다.
ⓒ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마음이나 생각을 알아내려고 살피다.
ⓓ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실상을 미루어 알다.
ⓔ 무엇을 이루고자 온 마음을 쏟아서 눈여겨보다.
ⓕ 음흉한 목적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벼르다.

① ㉠은 문맥으로 보아 ⓐ의 의미로 사용된 것 같아.
② ⓑ의 의미가 전의되어 ⓒ가 된 것으로 보여.
③ ⓓ의 경우는 '문틈으로 바깥을 엿보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어.
④ ⓔ의 경우는 '기회를 엿보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어.
⑤ ⓕ의 경우는 '왕위를 엿보다.'와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어.
③

소설 문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문은 비렁뱅이*다. 그는 예전부터 종루(鐘樓)* 시장 바닥에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길거리의 여러 비렁뱅이 아이들이 광문을 패두*로 추대하여, (자기들의 보금자리인) 구멍집을 지키게 하였다.

하루는 날씨가 춥고 진눈깨비가 흩날렸는데, 여러 아이들이 서로 이끌고 밥을 빌러 나갔다. 한 아이만 병에 걸려 따라가지 못하였다. 얼마 뒤에 그 아이가 더욱 추워하더니, 신음 소리마저 아주 구슬퍼졌다. 광문이 그를 매우 불쌍히 여겨, 직접 구걸하러 나가서 법을 얻었다. 병든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였지만, 아이는 벌써 죽어 버렸다.

여러 아이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서로 의논하여 광문을 두들기고는 내쫓았다. 광문이 밤중에 엉금엉금 기어서 동네 안으로 들어가, 그 집 개를 놀래 깨웠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 묶자, 광문이 이렇게 외쳤다.

㉠ < "나는 원수를 피해서 온 놈이유. 도둑질할 뜻은 없어유. 영감님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아침나절 종루 시장 바닥에서 밝혀드리겠어유." >

그의 말씨가 순박하였으므로, 주인 영감도 마음속으로 광문이 도둑이 아닌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새벽에 풀어 주었다. 광문은 고맙다고 인사한 뒤에, 거적때기를 얻어 가지고 가 버렸다. ⓐ 주인 영감이 끝내 그를 괴이하게 여겨, 그의 뒤를 밟았다. 마침 여러 거지 아이들이 한 시체를 끌어다가 수표교에 이르더니, 그 시체를 다리 아래에 던지는 것이 보였다. 광문이 다리 아래에 숨었다가 그 시체를 거적때기에 싸더니, 남몰래 지고 갔다. 서문 밖 무덤 사이에 묻고 나서는, 울면서 무슨 말인지 중얼거렸다.

집주인이 광문을 잡고서 그 영문을 물었다. 광문이 그제야 앞서 있었던 일과 어제 한 일들을 다 말해 주었다. ⓑ 주인 영감은 마음속으로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광문에게 옷을 주고는 두텁게 대하였다. 그리고 광문을 약방 부자에게 추천하여, 고용살이를 시켰다.

ⓒ 오래 뒤에 부자가 문 밖으로 나섰다가 자꾸만 돌아왔다. 다시 방 안에 들어와 자물쇠를 살펴보고는, 문 밖으로 나갔다. 그의 얼굴빛은 자못 불쾌한 듯 하였다가 돌아와 깜짝 놀라더니, 광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말하려다가, 얼굴빛이 바뀌더니 그만두었다.

ⓓ 광문은 그 이유를 정말 몰랐다. 날마다 잠자코 일했을 뿐이지, 감히 하직하고 떠나지도 못했다. 며칠이 지나자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지난번 제가 아저씨께 돈을 꾸러 왔더니, 마침 아저씨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방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갔었지요. 아마 아저씨께서는 모르고 계셨겠지요."

ⓔ 그제야 부자는 광문에게 매우 부끄러워하면 사과하였다.

㉡ < "나는 소인*이야. 이 일 때문에 점잖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네 그려. 내 이제 자네를 볼 낯이 없네." >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친구와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까지,

"광문이야말로 정의를 지닌 인간이지"

라고 두루 칭도*하였다. 그는 또 종실(宗室)의 손님들과 공경(公卿)의 문하*에 다니는 이들에게 이르는 곳마다 광문을 칭찬하였다. 그래서 공경의 문하에 다니는 이들과 종실의 손님들이 모두 광문을 이야깃거리로 삼아, 밤마다 그들의 배갯머리에서 들려주었다. 그리

[A] 하여 몇 달 사이에 사대부들이 광문의 이름을 모두 옛날 훌륭한 사람의 이름처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양 사람들이 모두들

"광문을 우대하던 중인영감이야말로 참으로 어질고도 사람을 잘 알아보는 분이지."

칭찬하였고, 더욱이

"약방 부자야말로 정말 점잖은 사람이야."

하고 칭찬하였다.

이때 돈놀이꾼들은 대체로 머리 장식품이나 구슬 비취옥 따위 또는 옷. 그릇. 집. 농장. 종 등의 문서를 전당 잡고서 밑천을 계산해서 빌려주었다. 그러나 광문은 남의 빚을 보증서면서도 전당 잡을 물건이 있는지를 묻지 않았다. 천 냥도 대번에 승낙하였다.

㉢ 광문의 사람됨을 말한다면, 그의 모습은 아주 더러웠고, 그의 말씨도 남을 움직이지 못했다. 입이 넓어서 두 주먹이 한꺼번에 드나들었다. 그는 또 만석(曼碩) 중놀이를 잘하고, 철괴(鐵拐) 춤을 잘 추었다. 당시에 아이들이 서로 헐뜯는 말로써

"니네 형이야말로 달문(達文)이지."

라는 말이 유행하였다. '달문'이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광문이 길에서 싸우는 이들을 만나면, 자기도 역시 옷을 벗어 젖히고 함께 싸웠다. 그러다가 무슨 말인가 지껄이면서 머리를 숙이고 땅바닥에 금을 그었다. 마치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듯했다. 그러는 꼴을 보고서 시장 사람들이 모두 웃었다. 싸우던 자들도 역시 웃다가 모두 흩어져 버리곤 하였다.

-박지원, 「광문자전」-

*비렁뱅이 : 거지를 얕잡아 이르는 말.
*종루(鐘樓) : 종을 달아 맨 누각.
*패두(牌頭) : 어떤 동아리나 무리의 우두머리.
*소인(小人) : 도량이 좁고 간사스러운 사람.
*칭도(稱道) : 칭찬하여 말하는 것.
*문하(門下) : 학문의 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아래.

58. 위 글에 나타난 '광문'의 인물됨을 바르게 평한 것은?

① 남에게 의심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②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매우 중시한다.
③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
④ 불우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강하고 정직하다.
⑤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④

59. [A]와 같은 상황을 빗대어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② 말로 온 동네 다 겪는다.
③ 머리는 끝부터 가르고 말은 밑부터 한다.
④ 말을 해야 맛이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①

60. ㉠과 ㉡을 말할 때의 화자의 태도를 알맞게 묶은 것은?

	㉠	㉡
①	분개하며	담담한 어조로
②	정색하며	미안한 어조로
③	비굴하게	무안한 얼굴로
④	혼잣말로	풀죽은 어조로
⑤	통곡하며	착잡한 얼굴로

②

61.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장차 광문의 품행이 변화해 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
②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③ 광문의 성품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외양 묘사로군.
④ 고전 소설 특유의 풍자적인 면모를 잘 보여 주는 것 같아.
⑤ 앞에서 전개되었던 광문의 행실이 비로소 수긍되는 것 같아.

②

62.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를 방백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거적대기는 뭣에 쓰려고 가지고 가는 걸까? 뒤를 밟아봐야지.'
② ⓑ – '역시 생각했던 대로 정직하고 순수한 아이로구나.'
③ ⓒ – '괜히 아이 하나를 들여 돈만 더 들어가니 큰일이야.'
④ ⓓ –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주인의 얼굴빛이 안 좋은지 모르겠네.'
⑤ ⓔ – '내가 괜한 사람을 의심했구나. 역시 광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곳으로 어서 들어가시오."

계집은 윗목에 놓인 피나무 궤를 열고 말하였다.

궤 속으로 들어간 배비장은 몸을 옹송그리고 앉아서 생각하니 한심스러웠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자기가 믿고 데리고 있는 방자의 계교라는 것을 어찌 알 것인가.

ⓐ 계집이 궤문을 닫고 쇠를 덜커덕 채우니 이제는 함정에 든 범이요, 독 안에 든 쥐였다. 배비장은 숨이 가빠져 왔다.

이 때 나갔던 사내가 다시 들어오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눈이 저절로 감겨 잠깐 꿈을 구니 백발 노인이 나 를불러, 네 집에 거문고와 피나무궤가 있느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액신이 붙어서 장난을 하므로 패가망신할 징조라 했다. 저 궤를 불태워 버려라. 어서 짚 한 단을 가지고 가서 불을 놓아라!"

배비장은 탄식하였다.

"이젠 화장인가.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냐.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이 때 계집이 악을 썼다.

"조상 적부터 전해 내려온 기물로 업귀신이 들어 있는 업궤인데 그것을 불사르라니 안 될 말이오."

"이 년아, 나는 너하고 못 살겠다. 나는 업궤를 가지고 나가겠다."

ⓑ 사내가 궤를 덜컥 어깨에 걸머지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계집이 붙들고 늘어졌다.

"임자가 업궤를 가져가고 나는 망하란 말이오? 이 궤는 못 놓겠소."

"그렇다면 한 토막씩 나누어 갖자."

사내는 커다란 톱을 가지고 와서 궤짝 위에 올려놓고 말하였다.

"자 어서 톱을 마주 잡고 당기자."

배비장은 더 참지 못하고 겁결에 소리를 질렀다.

"여보소. 미련도 하오.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하지 않소? 그 계집에게 궤를 다 주구려. 토막을 내면 못 쓰게 되고 말지 않소?"

그러자 사내는 톱을 내던지며 말하였다.

"아뿔사! 이놈의 업귀신이 도생하여 인사가 되었으니 불침으로 찌르자."

불에 단 송곳이 배비장의 왼편 눈으로 내려왔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궤 속의 배비장은 비장한 결심을 하고서 악이라도 한 번 써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아무리 무식하기로서니 눈의 소중함을 모른단 말이오?"

"에그! 궤신이 저 상할 줄 미리 알고 애걸하니 정상이 가엾구나. 그 몸 상하지 않도록 궤를 져다가 물에다 던져 버려라."

ⓒ 사내는 질빵을 걸어 궤짝을 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쯤 가는데 어디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그게 뭐냐?"

"업궤요."

"그 궤를 내게 팔아라."

"그러시오."

ⓓ 사내는 궤짝을 져다가 사또가 있는 동헌 마당에 놓고 물에 던지는 듯이 말하며 궤 틈으로 물을 붓고 흔들었다.

"궤 속 귀신 너는 들어라! 이 파도에 띄울테니 천리길을 떠나거라."

배비장은 생각하였다.

'어허 궤가 벌써 물에 떴나 보구나.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궤 중에서 탄식한다.

㉠

그런데 얼마 후에 들으니 어기어차! 어기어차!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몰론 사령들이 지어서 하는 배 젓는 소리였다.

배비장은 소리를 질렀다.

"거기 가는 배는 어디로 가는 배란 말이오?"

"제주 배요."

"어렵지만 이 궤를 실어다가 죽을 사람 살려 주오."

"궤 속에서 나는 그 소리가 이상하다. 우리 배에 부정 탈라! 상앗대로 떠밀자."

"난 사람이니 부디 살려 주오."

"어디 사는 사람이냐?"

"제주사오."

"제주라는 곳이 미색의 땅이라, 분명 유부녀 통간 갔다가 그 지경이 되었구나."

"예, 옳소이다."

"우리 배엔 부정이 탈까 못 올리겠고 궤문이나 열어 줄테니 헤엄을 쳐서 가거라. 그런데 이 물은 짠물이니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 테니 눈을 감고 가라."

ⓒ 사공이 쇠를 덜커덕 열어놓자, 배비장은 알몸으로 쑥 나와서 두 눈을 잔뜩 감고 이를 악물고 와락 두 손을 짚으면서 허우적거렸다.

한참을 이 모양으로 헤엄쳐 가다가 동헌 댓돌에다가 대가리를 부딪치니 배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서 두 눈을 번쩍 떴다. 자세히 살펴보니 동헌에 사또가 앉고 전후 좌우에 관속들과 기생, 노비들이 늘어서서 웃음을 참느라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가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그 꼴이 웬일인고?"

배비장은 어이가 없어 고개를 푹 수그렸다.

-작자 미상, 「배비장전」-

63. **〈보기〉는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의논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a. 배경 음악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인 내용에 잘 어울리도록 경쾌하면서도 코믹한 곡들로 구성하는 게 좋겠어.
b. 애랑은 정절을 중시하는 조선 시대 여성의 전형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해.
c. 향토민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다룬 작품이니까 사투리를 실감나게 구사해야 해.
d. 배비장은 위선적이고 어리석은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대사나 표정에 신경써야 해.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③

64. **〈보기〉의 내용을, ㉠ 부분에 배비장의 독백으로 삽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이 물 속에 죽다 한들 멱라수 아니어든 굴원(屈原)의 소절(素節)되며, 오강수(吳江水) 아니어든 자서(子胥)의 충절(忠節) 될까. 이름 없고 남 모르게 죽게 되니, 이런 때 배나 지나가면 목숨이나 살 수 있으련만"

① 허황되고 위선적인 지배층의 명예 의식을 풍자한다.
② 중국 고사가 보편화된 당대의 언어 현실을 비판한다.
③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어휘 사용으로 해학성을 얻는다.
④ 부귀영화를 중시하는 당대 양반들의 전형성을 제시한다.
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당당함을 보여 준다.

①

65. **ⓐ~ⓔ 중,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것은?**

보 기

인물의 성격이나 주인공이 처한 상황, 장면 의 특성 등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①

66. **위 글과 〈보기〉를 종합하여 '방자'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제주 목사를 따라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어느 날 동료들과 나들이를 갔다가 제주 기생 애랑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음식 대접을 받은 후로 그만 상사병이 나게 된다. 그는 자신이 부리는 하인 방자를 내세워 애랑과 서신을 교환하고, 어느 날 드디어 애랑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그러나 방자와 목사, 동료들의 장난으로 배비장은 자루 속에 갇히게 된다. 방자가 애랑의 서방 흉내를 내며 자루를 두들기자 배비장은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 짐짓 거문고 소리를 낸다. 방자가 잠시 소피를 보러 나간 동안 배비장은 피나무 궤로 몸을 숨긴다.

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이군.
② 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진취적 인물이군.
③ 의뭉스러운 언행으로 위선을 폭로하는 해학적 인물이군.
④ 자신의 이익을 노려 남을 해치다니 사악한 인간이로군.
⑤ 상전의 여인을 탐하다니 염치없는 사람이군.

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적이 가까이 왔단 말을 듣고 모친 모르게 상복을 벗어 상문(喪門)에 걸고 집을 떠나 순식간에 왜진에 들어가니, 청정*이 김덕령을 보고 놀래어 수문장을 불러 호령하였다.

"왜 진문(陣門)을 허수이 하여 조선 사람을 들어오게 하느뇨?"

군 중에 하령 왈,

"활과 총으로 쏘아 잡으라."

하니, ㉠ 활과 총이 비 오듯 하거늘 김덕령이 몸을 피하였다가 총과 화살이 그친 후에 다시 진중에 들어가 청정을 보고 불러 왈,

"나는 평안도 평강 땅에 사는 김덕령이다. 네가 천운을 모르고 외람된 뜻을 가져 의기양양하기로 내가 왔으니, 내 재주를 보라. 내일 오시(午時)에 네 수만 명 군사 머리에 백지 한 장씩을 붙일 것이니 그리 알라."

하고, 문득 간 데 없었다.

청정이 괴히 여겨 제장에게 분부 왈,

"내일 총과 활을 많이 준비하였다가 사시(巳時) 말, 오시 초 되거든 일시에 짐승이라도 쏘아 죽이라."

하더니, 그 이튿날 사시 말 오시 초녘이 되어 사면에서 채색 구름이 일어나며 지척(咫尺)을 분별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더니, 이윽고

하늘이 청명하며 덕령이 들어와 청정을 불러 꾸짖어 왈,

"나의 재주를 보라."

하고, ㉡ 백지를 던지니, 억만 군사 머리에 올라 감기거늘 억만 군사가 백화(百花)밭이 되는 것이었다.

청정이 그 재주를 보고 크게 질색하여 왈,

"내 재주 팔 년을 공부하였으되, 저러한 재주를 배우지 못하였으니 어찌 하리오. 아마 저 사람을 유인하여 선봉을 삼으면 염려 없이 대사를 이루리라."

하고 자탄(自歎)하는데, 덕령이 머리에 달린 백지를 일시에 걷어 치우고 청정을 불러 왈,

"나도 운수 불길하기로 재주만 뵈었으니 빨리 돌아가라. 만일 듣지 아니하면 부친 상옷을 상문에 사르고 너희를 한 칼로 무찌를 것이니, 부디 잔명(殘命)을 보전하여 급히 돌아가라."

하고, 간 데 없거늘, 청정이 의심하여 급히 성중으로 돌아가니라.

[나]

평안도 평강 땅에 사는 김응서와 전라도 사는 강홍엽, 황해도 사는 김승태와 함경도 사는 문두황 등 여러 사람들이 모두 범 같은 장수라. 각각 갑주*를 갖추고 이여송에 뵈오니 보시고 칭찬 왈,

"조선 같은 편소지국(偏小之國)*에 저러한 영웅호걸이 많거늘 어찌 요란치 아니 하리오."

하고 그 중에 재조를 보려 하고 높은 깃대 끝에 황금 일만 량을 달고 왈,

"제장 중에 저기 달린 황금을 떼어 오는 자 있으면 선봉을 삼으리라."

하니, 제장이 영을 듣고 한 장수 내달아 춤추며 몸을 날려 소소와 황금을 철추로 치니, 황금이 떨어지는지라. 또 한 장수 내달아 몸을 소소와 남은 황금을 떼어 가지고 돌아왔거늘, 이여송이 장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성명이 뉘라 하느뇨?"

장졸이 대 왈,

"먼저 장수는 김응서요, 두 번째 뗀 장수는 강홍엽이로소이다."

하니, 응서로 선봉을 삼고, 홍엽으로 후 선봉을 삼고 유후수로 좌익장을 삼고 백철남으로 우익장을 삼고 김일관으로 군량장을 삼고 그 남은 제장은 다 후 군장을 삼을 새, 제장이 군사를 몰아 강원도 왜장 청정의 진으로 행하니라. 이 때 왕께서 유성룡을 불러 가라사대,

"조선 군사와 대국 군사의 군량장을 맡아 수운하라."

하시더라.

각설 이 때 이여송이 왈,

"좋은 술 천 독만 내일 식전에 대령하라."

하니, 응서 대답하고 나와 군중에 전령하되, ㉢ 땅 밑을 깊이 파고 술 천 독을 하여 묻고 그 우에 백탄 숯을 피워 밤새 그렇게 하고 그 이튿날 술 천 독을 대령하니, 이여송이 보고 칭찬 왈,

"조선도 명인이 있도다."

하고, 또 분부하여 왈,

"내일 조시(朝時)에 용탕(龍湯)을 대령하라."

하니, 응서 능히 대답하고 나와 서천(西天)을 바라보고 슬피 우니, 어떠한 용이 시냇가에 죽었거늘, 즉시 용탕을 지어 올리니, 이여송이 또 가로되,

[A]

"소상반죽 젓갈을 들이라."

하니, 응서 능히 대답하고 나와 전하께 상달하니 상이 가라사대, ㉣ "그 전 선조 시에 신하 어떠한 양반이 일후에 써 먹을 일이 있다하고 전하여 온 것이 있으니 급히 가져가라."

하시되, 응서 반겨 듣고 젓갈을 갖다 올리니, 이여송이 칭찬 왈,

"천재로다, 천재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도다."

하고, 또 분부 왈,

"내일 조시(朝時)초에 백마(白馬) 백 필을 대령하라."

하니, 응서 능히 대답하고 군중에 전령하되,

㉤ "분칠도 하고 흰 가루 칠도 하여 백마 백 필을 대령하라."

하니 이여송이 대소(大笑) 왈,

"임시 체면이라도 저렇듯 하니, 어찌 그대의 재주 없으리오."

하고 인하여 유성룡으로 군량장을 삼으며 군량을 수운하게 하고 청정의 진으로 향하더라.

-작자 미상, 「임진록」-

*__청정(淸正)__ : 임진왜란 때 일본군 장수였던 '가등청정'을 말함.
*__갑주(甲冑)__ : 갑옷과 투구.
*__편소지국(偏小之國)__ : 구석에 치우친 조그마한 나라.

6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에는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나타나는 데 반해 (나)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이야기를 꾸며 주는 화소(話素)가 (가)보다 (나)에 좀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③ 사건이 전개되는 공간적 배경이 (나)보다 (가)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더 폭넓다.
④ 사건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흐름이, (가)보다 (나)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더 길다.
⑤ (가), (나) 모두 특정 인물의 뛰어난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에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③

68.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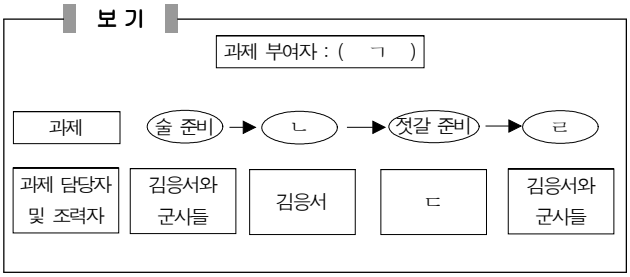
① '모친 모르게'를 통해 볼 때, 김덕령의 모친은 아마도 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했을 거야.
② '수문장을 불러 호령하였다.'를 통해 볼 때, 청정은 김덕령이 도술로 진중에 들어온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③ '내 재주 팔 년을 공부하였으되, 저러한 재주를 배우지 못하였으니'를 통해 볼 때, 청정은 김덕령이 자신보다 도술에 뛰어남을 인정하고 있어.
④ '아마 저 사람을 유인하여 선봉을 삼으면 염려 없이 대사를 이루리라.'를 통해 볼 때, 청정은 김덕령을 살려 두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있어.
⑤ '나도 운수 불길하기로 재주만 뵈었으니 빨리 돌아가라.'를 통해 볼 때, 김덕령은 청정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어.

④

소설 문학

69. **(나)의 [A] 부분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ㄱ~ㄹ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ㄱ	ㄴ	ㄷ	ㄹ
①	이여송	백마 준비	유성룡	용탕 준비
②	이여송	용탕 준비	김응서 · 임금	백마 준비
③	임금	재주 대결	김응서	백마 준비
④	임금	재주 대결	김응서 · 임금	용탕 준비
⑤	이여송	용탕 준비	군사들	황금 준비

②

70. **다음 중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이여송은 조선에 영웅들이 많음을 칭찬했다.
② 김응서는 이여송의 요구 사항을 모두 해결하였다.
③ 김응서는 용력(勇力)뿐만 아니라 기지도 갖추고 있었다.
④ 이여송은 재주가 가장 뛰어난 김응서를 선봉장으로 삼았다.
⑤ 이여송은 김응서에게 전쟁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자를 요구했다.

⑤

71.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보 기

우리의 고소설은 비현실적 요소를 많이 삽입하여 이야기의 흥미를 돋운다. 고소설의 비현실성은 흔히 '전기적(傳奇的) 성격'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전기(傳奇)'는 한문 문체의 하나인데, 가장 흔한 것이 귀신 이야기이며, 과물 이야기, 예언 이야기, 초월적 능력을 소유한 영웅 이야기 등이 모두 전기적 성격을 가진 이야기에 속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②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라도 남원(南原) 고을에 양(梁)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장가도 들지 못한 채 만복사(萬福寺)의 동쪽에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때는 바야흐로 봄이 무르익어 꽃이 활짝 피니, 마치 붉은 옥나무에 은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양 서생*(書生)은 언제나 달이 밝은 밤이면 그 나무 밑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낭랑한 목소리로 시를 읊곤 했다. 시는 다음과 같았다.

[A]
배나무 꽃 피어 적막함을 함께 하니
가련히 외롭건만 달은 밝기만 해.
젊은이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로
어디선가 아름다운 사람 피리를 불어주네.
짝 없는 물총새 홀로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물에 몸을 씻네.
뉘 댁과 인연 있는지 바둑돌 놓아 보고
등불 점 쳐보고는 창가에서 기대 있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별안간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한다면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양 서생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이튿날은 바로 3월 24일이었다. 이 고을에서는 이 날이 되면 만복사에 가서 등불을 켜고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 젊은 남녀들이 모여서 각자 그 소원을 비는 것이었다.

[B]
해는 지고 저녁 불공이 끝나자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다. 그 틈을 타서 양 서생은 소매 속에 저포*(樗蒲)를 품고 불상 앞에 나아갔다. 그는 저포를 던지기 전에 소원을 말하였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저포놀이를 할까 하옵니다. 만약 제가 지면 불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지신다면 아름다운 배필을 구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빌기를 마치고 저포를 던지니 양 서생이 이겼다. 그는 곧 부처님 앞에 꿇어앉아 말하였다.

"인연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 서생은 불상 밑에 몸을 감추고 약속한 배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에 어여쁜 아가씨가 한 사람 나타났는데 나이는 열대엿 살 가량 되어 보였다. 머리를 두 가닥으로 갈라서 쪽을 찌었으며 깨끗한 옷차림이었다. 얼굴과 몸가짐은 마치 하늘나라 선녀와 같아서 볼수록 엄숙하고 단정했다.

여인은 고운 손으로 등잔에 기름을 따라 불을 켜고, 향로에 향을 꽂은 후 세 번 절하고는 꿇어앉아 한숨을 쉬며 탄식했다.

"사람의 운명이 기구한들 어찌 나 같을 수 있을까?"

여인은 품속에서 축원문(祝願文)을 꺼내더니 탁자 위에 얹었다. 그 글에 적힌 사연은 이러했다.

'모(某) 고을 모 마을에 사는 소녀 아무개는 삼가 부처님께 아룁니다. 지난번 변방의 방비가 무너져 왜구(倭寇)가 침범해 오니 창과 방패가 눈 앞을 난무했고 봉화(烽火)는 한 해 동안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왜적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니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가족들과 하인들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냇버들같이 가냘픈 몸으로 멀리 피난가지 못하였지만 깊숙한 규방에 숨어 끝내 정절을 굳게 지켜, 여인의 도리에 어긋난 행실을 저지르지 않고 난리의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여자로서의 절개를 잃지 않았다고 하여 한적한 곳으로 옮겨 시골에서 잠시 살게 해 주셨는데, 그것도 이미 삼 년이 되었사옵니다. 그

러므로 가을에 뜨는 달이나 봄에 피는 꽃을 보면 아픈 마음에 헛되이 살면서, 들판에 뜬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하릴없는 나날을 보내며 깊은 골짜기에 홀로 사는 박명함을 한탄했습니다. ㉠ 홀로 밤을 지새며 짝 잃은 난새가 홀로 춤추는 것 같은 신세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이제 혼백마저 사라져 없어졌고, 기나긴 여름날과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낍니다. 오직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바라오니, 자세히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람의 일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으며 그 업보는 피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타고난 운명에 인연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니, 어서 배필을 정해 주시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한 지성으로 바라옵니다.'

여인은 축원을 바라는 글을 탁자 위에 놓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서생(書生) : 별다른 벼슬 없이 그저 책이나 읽고 지내는 젊은 남자.
*저포(樗蒲) : 놀이의 하나. 주사위나 윷놀이와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 듯함.

72. 위 글을 연극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용상 어울리지 <u>않는</u> 설정은?

① 구성 : 날짜와 장소가 바뀌는 부분이 있으므로 두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어.
② 무대 장치 : 앞부분은 달이 뜬 배나무 아래의 모습을, 뒷부분은 만복사의 불당 안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나타내야 하겠어.
③ 의상 : 여인은 왜구에게 희생된 혼령의 현신(現身)이므로 실체를 드러내지 말고 옷차림 등을 환상적인 모습으로 꾸며야겠어.
④ 조명 : 화자의 정서가 고조되는 밤 시간대는 특히 화자의 심리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가 살아나도록 조명에 신경을 써야 하겠어.
⑤ 연기 지도 : 양 서생이 부처님 앞에서 저포놀이를 하는 장면에서는 의도와는 다르게 자칫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으므로 진지하고 엄숙하게 연기하도록 해야 하겠어.

③

73. [A]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배나무 꽃'과 '달'은 화자의 심리가 만들어 낸 추상화된 사물들이다.
②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③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리라는 화자의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
④ '물총새'와 '원앙새'는 화자의 처지와 반대되는 소재로 화자의 서글픔을 심화시킨다.
⑤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떠난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74. 〈보기〉는 위 글의 내용을 서술 순서에 따라 그린 것이다. 이를 사건 발생 순서대로 옳게 재배열한 것은?

보 기

[그림 삽입]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②

75. ㉠과 같은 심경에서 부름 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당에 비 뿌리고 양류에 내 끼인 제
사공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석양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노매 -조현-
② 쟈근 거시 노피 떠셔 만물을 다 비취니
밤듕의 광월(光月)이 너만 하니 또 잇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벋인가 하노라. -윤선도-
③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顔)은 어디 가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 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설워하노라. -임제-
④ 방(房) 안에 혓는 촉(燭)불 눌과 이별(離別)하엿관대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줄 모르는고
뎌 촉(燭)불 날과 갓하야 속타는 줄 모르노라. -이개-
⑤ 어이 얼어 자리 무삼 일 얼어 자리
원앙침 비취금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찬비 맛자신이 녹아 잘까 하노라 //
북천이 맵다커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한우-

①

76. [B] 부분에서 '양 서생'이 맞게 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했겠어.
②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더니 꼭 그런 상황일세.
③ 짚신도 제 짝이 있다더니 때 맞춰 배필이 생기는군.
④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맞네.
⑤ 삼밭에 쑥대라고 사람에게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니리

천하 대세가 합한 지 오래 되면 반드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해짐이라. 한나라 말년에 진시황이 통일하였고 한고조께서는 인의로 통일하야 사백 년을 내려 오더니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 사방에서 벌떼같이 일어나 천하가 소란할 제 한말(韓末) 위한오 삼국 시절에 황족(皇族)이 유약하고 군도(群盜)가 일어난데 간휼하다 조맹덕은 천자를 가칭하야 천하를 엿보았고, 범람(氾濫)*타 손중모는 강하의 험고(險固) 믿고 제업(帝業)을 명심하여 창의할사 유현덕은 종사를 돌아보아 형성으로 말을 달리니, ㉠ 충간(忠奸)이 함께 서고 정족(鼎足)*이 삼분할새 모사(謀士)는 구름처럼 모여들고, 명장은 벌처럼 일어나노다. 북위의 모사 정욱, 순욱, 순문약이며, 동오의 모사 노숙, 장소, 제갈근과 경천위지(經天緯地) 무궁조화 잘긴들 아니허랴. 그 때에 유관장(劉關張) 삼인이 도원에서 결의할 제,

중머리

ⓐ 도원이 어데인고 한날 탁현이라. ⓑ 루상촌(樓桑村) 봄이 들어 붉은 안개 빛어나고 반도화(蟠桃花) 흐르난 물 아침 노을에 물들었다. 제단(祭壇)을 살펴보니 금(禁)줄을 둘러치고 오우백마(烏牛白馬)로 제 지내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의맹(義盟)을 정하는디, ⓒ 유현덕으로 장형 삼고 관운장(關雲長)은 중형이요 장익덕(張翼德) 아우되여 몸은 비록 삼인이나 마음과 정신은 한 몸이라 유관장(劉關張) 의형제는 같은 연월 한 날 한 시에 죽기로써 맹약(盟約)허고 피끓는 구국충심 도원결의(桃園結義) 이루었구나. 한말이 불운하여 풍진(風塵)이 뒤끓는다. ⓓ 황건적(黃巾賊)을 평란(平亂)허니 동탁(潼卓)이 일어나고, 동탁 난을 평정허니 이곽(李郭)이 난을 짓고, 이곽을 평정헌 후 난세간웅(亂世奸雄)인 조아만(曺阿瞞)은 횡포하고, 손중모는 강동(江東)을 웅거(雄據)허여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자랑헌다.

아니리

그때여 유관장은 삼인이 결심하야 한실(漢室)을 회복코저 적군과 분투(奮鬪)허나 장중(帳中)에 모사 없어 주야로 한(限)헐 적에 뜻밖에 원직(元直)만나 공명(孔明)을 천거(薦擧)허되 전무후무(前無後無) 제갈공명(諸葛孔明) 와룡강(臥龍岡)의 복룡(伏龍)이요 초당에 깊이 묻혀 상통천문(上通天文)이요 하달지리(下達地理) 구궁팔괘(九宮八卦) 둔갑장신(遁甲藏身) 흉중(胸中)에 품었으니 긍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인이라 이렇듯 말을 허니 유현덕 반기 여겨 관장과 와룡강을 찾어갈 제,

<중략>

와룡강을 당도허여 시문을 두드리니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 계옵시냐?"
동자 여짜오되,
"초당에 춘수(春睡)* 깊어 계시나이다."
현덕이 반기여겨 관공 장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완완(緩緩)이 들어가니 소슬(蕭瑟)한 송죽성(松竹聲)과 청량(淸亮)한 풍경(風磬)소리 초당이 한적(閑寂)쿠나 계하(階下)에 대시(待侍)허고 기다려 서 있으되 공명은 한와(閑臥)허여 아무 동정이 없는지라.
익덕이 성질을 급히 내어 고리눈 부릅뜨고 검은 팔 뒤걷으며 고성대질(高聲大叱) 왈,
"아 ,우리 가가(哥哥)는 한주(漢胄) 금지옥엽이라 저만은 사람을 보라하고 수차 수고를 허였거든 요망(妖妄)을 피우고 누워 일어나지를 아니허니 부러 거만(倨慢)허여이다 소제가 초당을 들어가 초당에 불을 버썩 지르면 공명이 재주가 있다허니 자나 깨나 죽나 사나 동정을 보아 제 만일 죽기 싫으면 응당 나올테니 노끈으로 결박(結縛)하야 신야로 돌아가사이다" 엄불(掩拂)에 다방 쓰러지고 끄르럼에 불을 들고 초당 앞으로 우루루루 달려드니 현덕이 깜짝 놀래 익덕의 손을 잡고 "현제(賢弟)야 현제야 이런 법이 없나니라 은왕성탕(殷王聖湯)도 이윤(李尹)을 삼빙(三聘)허고 문왕도 여상(呂尙)을 보라허고 위수에 왕래허니 삼고초려가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계후(警戒後)에
"운장은 익덕 다리고 문 밖에 멀리 서 동정을 기다려라!"

아니리

공명이 그제야 잠에 깨어 풍월지어 읊으는디
"초당에 춘수족(春睡足)허니 창외(窓外) 일지지(日遲遲)요 대몽(大夢)을 수선교(誰先覺)요 평생을 아자지(我自知)라"
동자 들어와 여짜오되
"전일 두 번 찾어왔던 유황숙이 밖에서 기대린 지가 거운 반일이 넘었나이다"
공명이 그제야 놀랜체허고 의관을 정제(整齊)헌다. ⓔ 머리에는 팔각윤건(八角輪巾) 몸에는 학창의(鶴氅衣)로다. 백우선(白羽扇) 손에 들고 당하에 내려와 현덕을 인도하야 예필좌정(禮畢坐定)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의 기상을 보니 수수(秀粹)한 영웅이요 창업지주(創業支主)가 분명허고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팔척이요 얼골은 관옥같고 미재강산정기(美哉江山精氣)하야 담연청기(淡然淸氣)허고 맑은 기운이 미간에 일어나니 만고영웅 기상이라 현덕이 속으로 칭찬허며 공손히 앉어서 말을 헌다.
"선생님을 뵈옵고저 세 번 찾아온 뜻은 다름이 아니오라 한실이 경복(傾覆)허고 간신이 농권(弄權)하와 종묘사직이 망재조석(亡在朝夕)이라 이 몸이 제주(帝胄)로서 갈충보국(竭忠報國)허랴허되 병미장과(兵微將寡)허고 재주 단천(短淺)하와 흥복(興復)치 못하오니 사직(社稷)이 처량(凄凉)허고 불쌍한게 창생(蒼生)이라 원컨대 선생께옵선 유비와 백성을 아끼시와 출산상조(出山相助) 허사이다"
공명이 대답허되
"양(亮)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야 포의야부(布衣野夫)로 남양 땅에서 춘풍세우(春風細雨) 밭이나 갈고 월하에 풍월이나 지어 읊을지언정 국가대사(國家大事)를 내 어찌 아오리까 낭설(浪說)을 들으시고 존가허행(尊駕虛行) 하였나이다"
굳이 사양 마다허니 현덕이 하릴없어,

진양조

서안(書案)을 탕탕 두드리며,
"여보 선생 듣조시오 천하대세가 날로 기울어져서 조적(曺賊)이 협천자이령제후(挾天子而令諸侯)를 허니 사백년 한실운(漢室運)이 일조일석에 있삽거든 선생은 청렴(淸廉)한 본을 받고 세상공명을 부운(浮雲)으로 생각허니 억조창생(億兆蒼生)을 뉘 건지리까"

말을 마치고 두 눈에 눈물이 듣거니 맺거니 방울방울 떨어지고 가슴을 뚜다려 복통단장(腹痛斷腸) 울음을 우니 용의 음성이 와룡강을 진동헌 듯 뉘랴 아니 감동허리.

-「적벽가」 (송만갑 판 / 박송술 창)-

*__범람(汎濫)__ : 물이 넘쳐 흐름. 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이 크게 나돎. 여기서는 후자의 뜻.
*__정족(鼎足)__ : 솥을 밑에 달린 세 개의 발.
*__춘수(春睡)__ : 봄철의 노곤한 졸음. 춘면(春眠).

77. 위 글에 나타난, 주된 대화 전개 양상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A	인물B	인물A	인물B
①	상대에게 요청하기 →	상대의 요청 거절하기 →	상대에게 간청하기 →	상대에게 감동받기
②	상대에게 요청하기 →	상대의 요청 외면하기 →	상대로 인해 낙심하기 →	의사 결정 보류하기
③	상대의 마음 떠보기 →	상대의 의도 간파하기 →	상대에게 간청하기 →	상대에게 감동받기
④	상대의 마음 떠보기 →	상대의 의도 간파하기 →	상대 칭찬하기 →	의사 결정 보류하기
⑤	상대 칭찬하기 →	상대의 요청 외면하기 →	상대 칭찬하기 →	상대의 의도 파악하기

①

7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 문답법을 사용하여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② ⓑ :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자연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 : 열거법을 사용하여 동일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을 나열하고 있다.
④ ⓓ : 연쇄법을 사용하여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 : 대구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④

79. 위 글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ㄱ. 등장 인물의 말이나 시선을 통해 다른 등장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
ㄴ. 창자(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
ㄷ. 사건 전개의 사회적인 배경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ㄹ. 창자가 사설(아니리) 부분에서 청중(독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ㅁ. 사건 전개를 간박하게 몰고 감으로써 청중(독자)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①

80. ㉠과 〈보기〉를 연관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보기 1>
노픈나 노픈 남게 날 권ᄒᆞ여 오려 두고
(높기도 높은 나무 위에 나를 올라가라고 권해 올려 놓고)
이보오 벗님ᄂᆞ야 흔들지나 마르되야
(여보게 벗님네들아, 흔들지나 말아 주오.)
ᄂᆞ려져 죽기는 셟지 아녀 님 못 볼가 ᄒᆞ노라
(떨어져 죽는 것은 슬프지 아니해도, 님 못 볼까 두렵구나.)
<보기 2>
냇ᄀᆞ에 히오라비 므스일 셔잇는다
(냇가에 서 있는 백로야! 무슨 일로 서 있느냐?)
무심ᄒᆞᆫ 져 고기를 여어 므슴 ᄒᆞ려는다
(사심 없이 노니는 저 고기를 엿보아서 무엇하려느냐?)
아마도 ᄒᆞᆫ 믈에 잇거니 니저신들 엇드리
(아마도 한 물에 살고 있으니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① <보기1>의 '흔들지나 마르되야'는 위 글의 '충(충신)'들의 바람으로 볼 수 있군.
② <보기1>의 '벗님네들'은 화자와 대립되는 관계로, 위 글의 '간(간신)'에 대응되는군.
③ <보기2>의 'ᄒᆞᆫ 믈'은 위 글에서 '충신'들이 모인 이상적 나라를 가리키는군.
④ <보기2>의 '고기와 히오라비'는 위 글의 '충간'에 비유할 수 있겠군.
⑤ <보기1>과 <보기 2>의 화자는 모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군.

③

81. 위 글이 지닌 작품의 의의에 관해 토의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악의 대결에서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던져 준다.
② 위기가 주는 서사적 긴장감과 함께 대의(大義)에 바탕을 둔 위기의 극복 자세가 감동을 준다.
③ 역사적 사건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역사와 문학이 본질적으로 동질함을 보여 준다.
④ 현실에서 벗어난 전기적(傳奇的)이고도 환상적인 사건을 제시하여 문학적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⑤ 당대의 풍속을 현대 시각으로 해석함으로써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삶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②

소설 문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때 좌수는 비록 망처의 유언을 생각하였지만 후사를 안 돌아볼 수도 없어서, 이에 혼처를 두루 구하였으나, 원하는 여인이 없으므로 부득이 허씨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

허씨의 용모를 말하자면 두 볼은 한 자가 넘고, 눈은 통방울 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 같고, 머리털은 돼지털 같고, 키는 장승만 하고, 소리는 이리 소리 같고, 허리는 두 아름이나 되는 것이 게다가 곰배팔이요, 수종다리에 쌍언청이를 겸하였고, 그 주둥이를 썰어 내면 열 사발은 되고, 얽기는 콩멍석 같으니 그 형상은 차마 바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그 심지가 더욱 불량하여 남이 못 할 노릇만을 골라 가며 행하니, 집에 두기가 단 한시인들 난감하였다.

그래도 그것이 계집이라고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 연달아 아들 삼 형제를 낳았다. 좌수는 그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모르니 매양 딸과 더불어 죽은 장씨 부인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두 딸을 못 보면 삼추같이 여기고, 돌아오면 먼저 딸의 침실로 들어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너희 자매들이 깊이 규중에 있으면서, 어미 그리워함을 늙은 아비도 매양 슬퍼한다."

하며 가련히 여기는 것이었다. 허씨는 그럴수록 시기하는 마음이 대발하여 장화·홍련을 모해하고자 꾀를 생각하였다. 이에 좌수는 허씨의 시기함을 짐작하고 허씨를 불러 크게 꾸짖었다.

"우리는 본래 가난하게 지내다가, 전처의 재물이 많아 지금 풍부히 살고 있소. 그대의 먹는 것이 다 전처의 재물이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크게 감동해야 마땅한데, 저 어린것들을 심히 괴롭게 하니, 다시는 그러지 마오."

하고, 조용히 개유*하나, 시랑* 같은 그 마음이 어찌 회과*함이 있으리오. 그 후로는 더욱 불측하여 두 자매를 죽일 뜻을 주야로 생각하였다.

하루는 좌수가 내당으로 들어와 딸의 방에 앉으며 두 딸을 살펴보니, 딸 자매가 서로 손을 잡고 슬픔을 머금고 눈물로 옷깃을 적시기에, 좌수가 이것을 보고 매우 자닝히* 여겨 탄식하며,

'이는 반드시 죽은 어미를 생각하고 슬퍼함이로다.'

하고, 역시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이 이렇게 장성하였으니, 너희 모친이 살아 있었다면 오죽이나 기쁘겠느냐. 그러나 팔자가 기구하여 허씨 같은 계모를 만나 구박이 자심하니, 너희들의 슬퍼함을 짐작하겠다. 이후에 이런 연고가 또 있으면 내가 처치하여 너희 마음을 편안케 하리라."

하고 나왔다. 이 때 흉녀 허씨가 창 틈으로 이 광경을 엿보고 더욱 분노하여 흉계를 생각하다가 문득 깨닫고, 제 자식 장쇠를 불러 ⓐ 큰 쥐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 낙태한 형상을 만들어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넣고 나왔다. 좌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려 이것을 보이려고 하였는데 마침 좌수가 외당에서 들어왔다. 허씨가 좌수를 보고 정색하며 혀를 차는지라, 괴이하게 여긴 좌수가 그 연고를 물었다.

"집안에 불측한 변이 있으나 낭군은 필시 첩의 모해라 하실 듯하기에 처음에는 발설치 못하였습니다. 낭군은 친어버이라, 나오면 이르고 들어가면 반기는 정을 자식들이 전혀 모르고 부정한 일이 많으나, 내 또한 친 어미가 아니므로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늦도록 기동치 아니하기에 몸이 불편할까 하여 들어가 보니, 과연 낙태를 하고 누웠다가 첩을 보고 미처 수습치 못하여 쩔쩔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마음에 놀라움이 컸지만, 저와 나만 알고 있거니와 우리는 대대로 양반이라 이런 일이 누설되면 무슨 면목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좌수는 크게 놀라 이에 부인의 손을 이끌고 여아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추어보았다. 이 때 장화 자매는 잠이 깊이 들어 있었으니, 허씨가 그 피묻은 쥐를 가지고 날뛰었다. 용렬*한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놀라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리오."

하며 고심하였다. 이 때 흉녀가 하는 말이,

"이일이 매우 중난하니 남이 모르게 죽여 흔적을 없이 하면, 남은 이런 줄은 모르고 첩이 심하여 애매한 전실 자식을 모해하여 죽였다고 할 것이요, 남이 알면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차라리 첩이 먼저 죽어 모르는 게 나을까 합니다."

하고 거짓 자결하는 체하니, 저 미련한 좌수는 그 흉계를 모르고 급히 달려들어 붙들고 빌면서,

"그대의 진중한 덕은 내 이미 아는 바이니, 빨리 방법을 가르치면 저 아이를 처치하겠소."

하며 울거늘, 흉녀는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원을 이룰 때가 왔다.'

하고, 마음에 기꺼워하면서도 겉으론 탄식하여 하는 말이,

"내 죽어 모르고자 하였더니, 낭군이 이토록 과념하시니 부득이 참거니와, 저 아이를 죽이지 아니하면 장차 문호에 화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니 빨리 처치하여 이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였다. 좌수는 망처의 유언을 생각하고 망극하나, 일변 분노하여 처치할 묘책을 의논하니, 흉녀는 기뻐하며,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속여 저희 외삼촌댁에 다녀오게 하고, 장쇠를 시켜 같이 가다가 뒤 연못에 밀쳐 넣어 죽이는 것이 상책일까 합니다."

–작자 미상, 「장화홍련전」–

*__개유(開諭)__ : 알아듣도록 깨우쳐 타이름.
*__시랑(豺狼)__ : 승냥이와 이리.
*__회과(悔過)__ : 잘못을 뉘이치는 것.
*__자닝히__ :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애처롭게.
*__용렬(庸劣)__ :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82.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비유와 과장의 방법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ㄴ. 비현실적인 자연 배경이 작품에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ㄷ.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중 인물에 관하여 주관적 논평을 가하고 있다.
ㄹ. 비속어와 해학적인 말투를 주로 구사하여 자연스럽게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②

83.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① 좌수가 허씨를 새 아내로 맞이한 것은 죽은 본처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② 허씨가 아들을 낳게 되자 장화와 홍련에대한 좌수의 태도가 돌변하였다.
③ 허씨는 좌수의 죽은 아내가 남긴 재산을 노리고 좌수에게 접근한 것이다.
④ 좌수는 장화를 징벌함으로써 가문에 닥칠지도 모를 화를 면하고자 하였다.
⑤ 허씨가 장화와 홍련을 모해하려 한 것은 아들 장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함이다.

④

84. **ⓐ의 '큰 쥐'와 〈보기〉의 '쥐'가 담당하는 기능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보 기

방 가운데는 떡상이 있고, 그의 아우는 수건이 벗어져서 목 뒤로 늘어지고, 저고리 고름이 모두 풀어져 가지고 한편 모퉁이에 서 있고 아내도 머리채가 모두 뒤로 늘어지고 치마가 배꼽 아래 늘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그의 아내와 아우는 그를 보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듯이, 움찍도 않고 서 있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아이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좀 있다가 마침내 그의 아우가 겨우 말했다.

"그놈의 쥐 어디갔나?"

"흥! 쥐? 훌륭한 쥐 잡았다."

그는 말을 끝내지 않고 짐을 벗어버리고 뛰어가서 아우의 멱살을 그러쥐었다.

"형님 정말 쥐가!"

"쥐? 아뭅! 형수와 그런 쥐 잡는 놈 어디 있나?"

그는 아우의 따귀를 몇 번 때린 뒤에 등을 밀어서 문 밖에 잡어던졌다.

	ⓐ의 '큰 쥐'	<보기>의 '쥐'
①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다.	사건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
②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사건 해결의 장애물이 된다.
③	사건의 극적 반전을 예고한다.	
④	작중 인물의 처지를 부각시킨다.	
⑤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⑤

85. **문맥상 (㉠)에 들어갈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초미지급(焦眉之急)
② 천려일득(千慮一得)
③ 목불인견(目不忍見)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⑤ 기세양난(其勢兩難)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소년 선비 김생은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을 우연히 보고 저도 모르게 사랑에 빠진다. 우여곡절 끝에 김생은 막동과 노파의 도움으로 영영을 만나게 되고, 영영이 있는 궁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 이윽고 몰래 궁으로 들어간 김생이 영영을 만나 사랑을 확인하지만, 이후 회산군이 죽고 노파도 세상을 뜨고 나자 서로 연락할 길이 끊어진다. 3년 후 김생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3일 유가(遊街)를 하게 된다.

김생은 머리에 계수나무 꽃을 꽂고 손에는 상아로 된 홀을 잡았다. 앞에서는 두 개의 일산*이 인도하고 뒤에서는 동자들이 옹위(擁衛)*하였으며, 좌우에서는 비단옷을 입은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고 악공들은 온갖 소리를 함께 연주하니, 길거리를 가득 메운 구경꾼들이 김생을 마치 천상의 신선인 양 바라보았다.

[A] 김생은 얼큰하게 술에 취한지라, 의기(意氣)가 호탕해져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백 걸음 정도 빙빙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희롱하는 나비와 미친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누구의 집이냐고 물으니, 곧 회산군 댁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宮人)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 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 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喪服)을 벗은 상태였다. 그 동안 부인들은 마음 붙일 곳 없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광대들의 재주가 보고 싶었다. ⓑ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누이게 하였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 궁중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드리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 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이 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획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산군 댁입니다."

[B] 김생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곳에 왔습니까?

장획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 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

를 가져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 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뜯어 보니, 그 글에 일렀다,

박명*한 첩 영영은 재배하고 낭군께 사룁니다. 저는 살아서 낭군을 따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해*만이 남은 숨을 헐떡이며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어찌 제가 성의가 없어서 낭군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고, 땅은 얼마나 막막하던지! ⓔ 복숭아와 자두나무에 부는 봄바람은 첩을 깊은 궁중에 가두고, 오동에 내리는 밤비는 저를 빈 방에 묶어 놓았습니다. 오래도록 거문고를 타지 않으니 거문고 갑(匣)에는 거미줄이 생기고, 화장 거울을 공연히 간직하고 있으니 경대(鏡臺)에는 먼지만 가득합니다.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저의 한을 돋우는데, 새벽 별과 이지러진 달인들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면 구름이 제 눈을 가리고, 창가에 기대어 생각에 잠기면 수심이 제 꿈을 깨웠습니다.

–작자 미상, 「영영전」–

*__일산(日傘)__ : 볕을 가리기 위하여 세우는, 우산처럼 생긴 물건.
*__옹위(擁衛)__ : 부축하여 호위하는 것.
*__주렴(珠簾)__ : 구슬을 실에 꿰어 만든 발.
*__박명(薄命)__ :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것.
*__잔해(殘骸)__ : 썩거나 타다 남은 뼈.

8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서술하고 있다.
②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④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배경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인물의 언행만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②

87. **위 글을 TV 드라마로 만들기 위한 제작 회의에서 나온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김생의 유가 장면을 촬영할 때에는 화려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어.
② 김생이 회산군 댁을 발견하는 장면에서는 그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겠어.
③ 인물들의 의상은 당시의 복식을 연구하여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만들어야 해.
④ 김생이 영영을 바라보며 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주면 더욱 비극적일 거야.
⑤ 김생이 편지를 읽는 장면에서 그 내용을 영영이 읽는 것처럼 구성하는 것이 좋겠어.

④

88. **〈보기 1〉을 [A]와 같이 바꾸어 썼다고 가정할 때, 그 효과를 〈보기 2〉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1

얼큰하게 술에 취한 김생은 채찍을 잡고 말 위에 걸터앉아 수많은 집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갑자기 길가의 한 집이 눈에 띄었는데 높고 긴 담장이 둘러 있었으며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눈에 띄었다.

김생이 물었다.

"여기가 뉘 댁인가?"

말을 끄는 이가 대답했다.

"이 곳은 회산군 댁입니다."

김생은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알아나지 않았다. 궁인(宮人)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 때 회산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궁인들은 이제 막 상복(喪服)을 벗은 상태였다. 회산군의 부인이 시녀들에게 말했다.

"저 분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의 사랑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눕게 하여라."

보 기 2

a. 서술자와 등장 인물 간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b. 인물의 내면 심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c. 인물의 목소리를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d.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 사건 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e. 배경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① a, b, d ② a, c, d ③ b, c, d ④ b, c, e ⑤ b, d, e

⑤

89. **[B]에 드러난 인물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어진 상황을 담담하게 수용하며 체념하고 있다.
② 자신의 처지에 참담함을 느끼며 운명을 탓하고 있다.
③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며 행동하고 있다.
④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깜짝 놀라고 있다.
⑤ 엉뚱한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데 대해 당혹해하고 있다.

③

90. **ⓐ~ⓔ 중, 〈보기〉에 제시된 표현 기법을 사용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주객전도(主客顚倒)'란 행동의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즉 행동의 대상인 객체를 주체로 놓고, 행동의 주체를 객체로 바꾸어 표현하는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표현에 비해 행동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⑤